

2021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2021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 CONTENTS

## I. 교과 스터디

- 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 3
- 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 7
  - 1. 너바논 ..... 7
  - 2. 미생식생 ..... 10
  - 3. 법규법규♡ ..... 15

## II. 비교과 스터디

- 비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 21
- 비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 24
  - 1. 18학번의 컴활 스터디 ..... 24
  - 2. C2Y1 ..... 27
  - 3. 토익열차 ..... 30

## III. 전공 튜터링

- 전공 튜터링 완료 명단 / 37
- 전공 튜터링 우수팀 활동 사례 / 39
  - 1. 뇌가 쑥쑥 발달하는 심리학 튜터링 ..... 39
  - 2. 진핵생물들 ..... 42
  - 3. 히암슬터즈 ..... 45

## IV. 리딩 리더스

- 리딩 리더스 완료 명단 / 53
- 리딩 리더스 우수팀 활동 사례 / 54
  - 1. 책먹는 하마들 ..... 54
  - 2. 책책마이크책 ..... 56

## V. 영글 클럽

- 영글 클럽 완료 명단 / 61
- 영글 클럽 우수팀 활동 사례 / 63
  - 1. 구공즈 뮤비클럽 ..... 63
  - 2. 사랑마을 차차차 ..... 66

# CONTENTS

## VI.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 71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 72
  - 1. A 뿌려조 ..... 72
  - 2. 프로이트 팬카페 ..... 74

## VII.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완료 명단 / 77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우수팀 활동 사례 / 80
  - 1. 뿌꾸뿌꾸 ..... 80
  - 2. 슬기로운 컴활생활 ..... 82
  - 3. 공 CHA ..... 85
  - 4. 소라 ..... 87
  - 5. 지역사회간호, 간호행정 마스터 ..... 89

## VIII.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 95
-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 96
  - 1. 오르렁약물학 ..... 96
  - 2. 으쌰으쌰 ..... 98

2021 학년도 2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 I. 교과 스터디

- 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 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1. 너바는
  2. 미생식생
  3. 법규법규♡



## ○ 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 팀명             | 팀원  | 학과      |
|----------------|-----|---------|
| 너바눈<br>(우수)    | 최*우 | 미술치료학과  |
|                | 김*인 | 미술치료학과  |
|                | 임*희 | 미술치료학과  |
| 미생식생<br>(우수)   | 최*지 | 식품생명공학과 |
|                | 강*교 | 식품생명공학과 |
|                | 이*서 | 식품생명공학과 |
|                | 조*송 | 식품생명공학과 |
| 법규법규♡<br>(우수)  | 김*린 | 시보건의료학부 |
|                | 박*늘 | 시보건의료학부 |
|                | 성*  | 시보건의료학부 |
| 파이오니어(Pioneer) | 이*우 | 바이오공학과  |
|                | 심*미 | 바이오공학과  |
|                | 김*중 | 바이오공학과  |
| 임상약료 마스터       | 김*주 | 약학과     |
|                | 고*영 | 약학과     |
|                | 오*정 | 약학과     |
|                | 이*혜 | 약학과     |
|                | 정*경 | 약학과     |
|                | 최*웅 | 약학과     |
|                | 홍*택 | 약학과     |
| 금쪽같은 내 생약      | 김*우 | 약학과     |
|                | 손*나 | 약학과     |
|                | 신*영 | 약학과     |
|                | 이*현 | 약학과     |
| 약치 이게 머선 129   | 장*래 | 약학과     |
|                | 최*빈 | 약학과     |
|                | 오*은 | 의생명과학과  |
| 사망년 이갈기        | 조*현 | 의생명과학과  |
|                | 황*지 | 의생명과학과  |
|                | 이*지 | 바이오공학과  |
| 다정한 현재         | 김*정 | 바이오공학과  |
|                | 김*은 | 바이오공학과  |
|                | 조*리 | 상담심리학과  |
| 어떻게 할까         | 송*인 | 상담심리학과  |
|                | 오*연 | 상담심리학과  |

| 팀명       | 팀원  | 학과     |
|----------|-----|--------|
| 약물학 할끄니까 | 조*정 | 약학과    |
|          | 고*영 | 약학과    |
|          | 문*주 | 약학과    |
|          | 송*심 | 약학과    |
|          | 원*웅 | 약학과    |
|          | 이*희 | 약학과    |
| 스터디 또 하조 | 손*애 | 의생명과학과 |
|          | 강*석 | 의생명과학과 |
|          | 이*석 | 의생명과학과 |
|          | 박*희 | 의생명과학과 |
| 오병이어     | 이*현 | 약학과    |
|          | 김*솔 | 약학과    |
|          | 김*영 | 약학과    |
|          | 배*현 | 약학과    |
|          | 이*연 | 약학과    |
| 차곡차곡     | 최*우 | 약학과    |
|          | 강*기 | 약학과    |
|          | 곽*구 | 약학과    |
|          | 김*안 | 약학과    |
|          | 박*욱 | 약학과    |
|          | 황*  | 약학과    |
|          | 김*온 | 약학과    |
|          | 남*원 | 약학과    |
| 차공주들     | 오*영 | 의생명과학과 |
|          | 서*리 | 의생명과학과 |
|          | 윤*연 | 의생명과학과 |
|          | 윤*현 | 의생명과학과 |
|          | 이*신 | 의생명과학과 |
|          | 한*성 | 의생명과학과 |
| 분자둥이     | 윤*진 | 바이오공학과 |
|          | 김*민 | 바이오공학과 |
|          | 박*정 | 바이오공학과 |
|          | 황*진 | 바이오공학과 |
| 머글의 유전학  | 윤*정 | 의생명과학과 |
|          | 양*영 | 의생명과학과 |
|          | 이*견 | 의생명과학과 |
|          | 이*은 | 의생명과학과 |



| 팀명                        | 팀원  | 학과      |
|---------------------------|-----|---------|
| 몽키스패너                     | 임*혜 | 시보건의료학부 |
|                           | 이*운 | 시보건의료학부 |
|                           | 최*진 | 시보건의료학부 |
| 울창울창                      | 노*주 | 바이오공학과  |
|                           | 권*혜 | 바이오공학과  |
| 2102 (21학번을 지배할<br>02년생들) | 임*경 | 미술치료학과  |
|                           | 박*현 | 미술치료학과  |
|                           | 서*정 | 미술치료학과  |
|                           | 이*준 | 미술치료학과  |
|                           | 이*주 | 미술치료학과  |
|                           | 황*정 | 미술치료학과  |
| 이상한 나라의 심리학               | 나*지 | 상담심리학과  |
|                           | 서*혁 | 상담심리학과  |
|                           | 인*숨 | 상담심리학과  |
| 굿바이오                      | 이*은 | 의생명과학과  |
|                           | 김*호 | 의생명과학과  |
|                           | 유*재 | 의생명과학과  |
|                           | 유*정 | 의생명과학과  |
|                           | 김*원 | 의생명과학과  |
| 모성부인과 호르몬 전쟁              | 김*서 | 간호학과    |
|                           | 김*현 | 간호학과    |
|                           | 김*민 | 간호학과    |
|                           | 김*지 | 간호학과    |
| A뿌려조                      | 이*연 | 상담심리학과  |
|                           | 송*인 | 상담심리학과  |
|                           | 최*원 | 상담심리학과  |
| 최강대모임                     | 최*현 | 약학과     |
|                           | 기*윤 | 약학과     |
|                           | 장*린 | 약학과     |
| 아름알음생약학                   | 김*정 | 약학과     |
|                           | 박*현 | 약학과     |
|                           | 서*연 | 약학과     |
|                           | 박*희 | 약학과     |
|                           | 장*영 | 약학과     |
| 생화학마스터                    | 안*영 | 약학과     |
|                           | 강*망 | 약학과     |
|                           | 송*영 | 약학과     |
|                           | 김*희 | 약학과     |
|                           | 김*현 | 약학과     |

| 팀명                     | 팀원  | 학과  |
|------------------------|-----|-----|
| prepharmacist-국시편(합성학) | 신*영 | 약학과 |
|                        | 김*혜 | 약학과 |
|                        | 김*연 | 약학과 |
|                        | 임*영 | 약학과 |
| 생약92                   | 윤*원 | 약학과 |
|                        | 배*희 | 약학과 |
|                        | 안*빈 | 약학과 |
|                        | 이*민 | 약학과 |
|                        | 정*영 | 약학과 |
| 6J1P                   | 정*영 | 약학과 |
|                        | 이*미 | 약학과 |
|                        | 김*환 | 약학과 |
|                        | 김*욱 | 약학과 |
|                        | 정*규 | 약학과 |
|                        | 박*람 | 약학과 |
|                        | 유*운 | 약학과 |
| Permission to 예방       | 정*정 | 약학과 |
|                        | 배*희 | 약학과 |
|                        | 안*빈 | 약학과 |
|                        | 이*민 | 약학과 |
| 마이크로결즈 파이널             | 김*우 | 약학과 |
|                        | 손*나 | 약학과 |
| 국시합격100%               | 김*인 | 약학과 |
|                        | 박*정 | 약학과 |
|                        | 손*나 | 약학과 |
|                        | 김*우 | 약학과 |
| 약치는 즐거워                | 권*현 | 약학과 |
|                        | 김*경 | 약학과 |
|                        | 민*기 | 약학과 |
|                        | 박*  | 약학과 |
|                        | 이*지 | 약학과 |
|                        | 한*훈 | 약학과 |
| 약치에서 살아남기              | 윤*연 | 약학과 |
|                        | 이*주 | 약학과 |
|                        | 김*미 | 약학과 |
|                        | 최*희 | 약학과 |
|                        | 박*연 | 약학과 |

## ○ 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 팀명 : 너바논

- 학과: 미술치료학과
- 팀원: 김\*인 임\*희 최\*우
- 학습과목: 신경과학개론
- 학습장소: ZOOM, Google Meet
- 학습 기간: 2021.09.24. ~ 2021.12.03.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9/24  | 19:00 ~ 20:30 | Google Meet | 본 과목의 1, 2차 쪽지시험 오답정리 및 복습을 진행하였다.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구성하는 기본 구조와 함께 뉴런 및 신경교세포의 기능에 대한 개념을 수립하였다. 또한, 뇌의 기본 구조와 각 영역의 기능에 대해 학습하였다.                        |
| 10/01 | 19:00 ~ 20:30 | ZOOM        | 수업진도에 맞춘 전반적인 용어 암기와 함께 뇌의 기본 구조와 기능에 대해 복습하였다. 뇌의 해부학적 구조를 살펴 며 각 영역에 대한 구조적, 기능적 특징들에 대해 이해하였다. 특히 이마엽의 브로카 영역과 관자엽에 위치한 베르니케 영역의 구별을 중점으로 하여 학습하였다. |
| 10/08 | 19:00 ~ 20:00 | ZOOM        | 뇌의 심부구조와 기능에 대해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색질, 바닥핵, 뇌활, 돌레계통을 중심으로 각 영역의 주요기능 및 위치에 대해 학습하였다. 특히 바닥핵과 돌레계통의 편도체의 위치를 강조하며 헛갈리지 않게끔 두 구조를 비교해보았다.                   |
| 11/12 | 19:00 ~ 20:00 | ZOOM        | 뇌줄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하여 학습하였다. 뇌줄기의 기본구조인 중간뇌, 다리뇌, 숨뇌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상기하였으며 각 구역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며 기능을 알아보았다. 또한 뇌줄기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11/19 | 19:00 ~ 20:30 | ZOOM        | 뇌신경핵과 뇌신경의 구조 및 기능을 학습하였다. 뇌신경핵과 관련된 표를 살펴보고 감각과 운동, 각각의 위치, 뇌신경(1~12번), 그리고 역할에 대한 개념을 복습하였다. 총 12쌍의 뇌신경을 복습하며 감각/운동/복합, 특수/일반, 몸/내장 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다. |
| 12/03 | 19:00 ~ 20:30 | Google Meet | 중간고사 이후 범위의 학습내용을 바탕으로 튜터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였고, 스터디원 모두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문제해설을 들으며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짚어볼 수 있었고, 기말고사 준비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

○ 활동 소감

- 화상회의 플랫폼의 '화면공유' 기능을 활용하여 필기본을 공유하며 스터디를 진행함.
- 단어 암기 어플을 이용하여 의학용어를 정리하는 스터디 자체과제를 실시함.

▶ 종합 의견

안녕하세요, 교과 스터디 팀 <너바눈>입니다. 저희 스터디의 팀명, '너바눈'은 신경과학개론 전공 교과목을 담당하시는 신학승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교안에서 교수님의 사진과 함께 쓰이며, '너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교수님이 항상 바라보고 있으니 신경과학개론 교과목에 최선을 다 하자는 의미에서 정한 것입니다. 덕분에 제목을 곱씹으며 즐겁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저희는 한 학기 동안 스터디를 총 6번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었던 스터디의 장점은 같은 과목을 공부하는 동기들끼리 모여서 교과 스터디를 준비하다 보니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모두 신경과학 공부에 익숙하지 않았고 과목 특성상 의학용어를 비롯하여 낯설게만 느껴지는 부분이 많았기에 처음에는 무척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강의를 혼자 복습하고 시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교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학습법 소모임 프로그램을 통해 셋이서 시간을 정해서 모이는 자리를 가지며 스터디에 성실히 참여하고,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팀원들과 의지를 다지며 공부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비대면 상황으로 팀원들과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웠지만, 진행하다보니 대면 상황에 따라오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어서 원활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서로가 정리한 필기본이나 문제 등을 화상회의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화면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튜터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날 맡은 파트의 강의를 재차 복습하고, 스스로 공부하며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 이해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입장에서 교안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경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서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직 학습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했던 점들도 같이 해결하였는데, 이 점은 스터디원 모두가 도움이 많이 된 부분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기도 했습니다. 혼자 공부했을 때와는 달리, 서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고 해당 교과목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헛갈릴만한 문제에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정규시간 외에 진행하는 스터디로 시험공부를 위한 복습 진도를 부지런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진행하였기 때문에 시간에 쫓겨서 벼락치기를 하지 않고, 계획적이고 규칙적으로 저희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바논’ 스터디를 진행하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있어서 스터디원 전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교과목이 다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기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스터디 프로그램에 지원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유에서 시작되었던 작은 스터디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큰 배움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교에 학생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다음에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의 스터디 활동에 대한 소감을 마칩니다. 한 학기동안 잘 진행해준 스터디원 모두에게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무사히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분들께도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팀명 : 미생식생

- 학과: 식품생명공학과
- 팀원: 강\*교, 이\*서, 조\*송, 최\*지
- 학습과목: 식품화학II, 식품미생물학
- 학습장소: ZOOM, 미래관
- 학습 기간: 2021.09.24. ~ 2021.12.08.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09/24 | 16:30 ~ 18:30 | ZOOM | 식품화학 2의 단백질 파트를 학습하였다. 식품화학1 과목에서 이어지는 다음 내용인 단백질의 기능과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구조, 그리고 식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단백질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팀원들과 함께 각자의 효율적인 암기 방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 10/08 | 16:30 ~ 18:30 | ZOOM | 식품화학 2 내용 중 단백질 변성에 대한 내용부터 효소의 주요 작용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효소 파트에서는 효소의 정의, 효소반응의 기작 & 기질 특이성, 반응 속도론, 효소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등 여러 챕터에 대해 하나씩 공부를 진행했다. 각자 효소 파트 문제를 풀어보고 질의응답을 하기도 했다. |
| 10/13 | 16:30 ~ 18:30 | ZOOM | 1회차와 2회차를 통해 학습한 식품화학 2 중간고사 범위 내의 내용을 복습하고, 연습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며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팀원들과 함께 암기한 부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어려운 부분을 공유하였다.   |
| 11/12 | 16:30 ~ 18:30 | ZOOM | 이번 4회차부터는 원래 미생식생의 학습계획대로 전공과목인 식품미생물학1 과목의 내용 복습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미생물 구조와 특성, 물질의 막 투과, 포도당 대사와 ATP 수율, TCA cycle과 산화적 인산화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였다.  |
| 11/26 | 16:30 ~ 18:30 | ZOOM | 마찬가지로 식품미생물학1 내용인 미생물 생합성 _Monomer & Polymer, Heterotroph의 호기적 대사, 혐기성 발효 파트를 차례로 학습하면서, Nucleotide의 합   |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               |     | 성, 지질의 합성, 다당류의 합성, 인지질의 합성, 미생물의 다당류 합성, Glycogen의 합성, 세포벽의 합성, Outer membrane 합성, Cytoplasmic membrane의 형성, Capsule의 형성, DNA 합성, DNA 복제, RNA 합성, 단백질의 합성까지의 내용을 학습하였다. 다소 양이 많고 새로 암기해야 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 팀원들간 암기 사항을 줌을 이용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였다. |
| 12/08 | 14:30 ~ 15:30 | 미래관 | 이번 6회차에서는 미생물의 구조와 특성부터 혐기성 발효까지 4, 5주차에 걸쳐 진행한 학습내용을 모두 정리하고 마무리하며 식품미생물학1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무래도 시험기간이고, 시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라인 줌을 이용하기 보다는 오프라인을 통해 서로 직접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학교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다.                                     |

○ 활동 소감

▶강\*교

지난 2학년 1학기 한 학기를 보내면서, 나의 학습에 있어서 변화점을 주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같은 고민을 하던 동기들과 소모임을 진행하기로 했다. 1학기는 내 자신이 나태해진 것이 느껴졌었는데, 주기적으로 줌을 통해 동기들과 피드백을 하며 학습을 하니 강의도 밀리지 않고 듣게 되었다.

그 전까진 항상 강의는 출석체크만 기간 내에 해두고 시험 하루, 이틀 전에 몰아서 보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미리미리 학습을 하니, 남들은 시험 전에 부랴부랴 준비를 했지만 오히려 여유있게 준비를 할 수 있었다.

특히 앞 1-3주차에서 진행했던 식품화학2는 워낙에 흐름적이지 않고 정보로만 가득한 이론이기 때문에 혼자서 학습하기엔 매우 무리가 갈 수 있는 과목이다. 실제로 1학기에 수강한 식품화학1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물론 이 소모임의 목적은 식품미생물학1 학습이었지만, 이는 중간고사를 치지 않아 식품화학2 학습으로 대체 하였는데, 중간고사 대비를 팀원들과 함께 하고 나니, 기말고사 대비는 혼자서도 전 학기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후 4-6주차에 진행한 식품미생물학 같은 경우, 이 과목은 기말고사에 1-15주차 내용을 한꺼번에 시험을 치기 때문에 식품화학2와 다른 의미로 혼자 학습하기 버거운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도, 팀원들과 분량을 나누어 학습 후 서로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학습하니 시간

도 절약될뿐더러, 교수님의 설명만 들었을 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동기들의 쉽게 순화된 설명을 들으니 더욱 이해가 잘 되었다.

마지막으로, 소모임의 가장 큰 장점은 팀원들과의 학습법 공유를 통해 더 자극 받으며 나 스스로를 반성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만약 이런 기회가 다음 학기에도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소모임을 진행하고 싶고, 그렇지 않더라도, 동기들과 줌터디를 자주 사용하며 협업하며 학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이\*서

지속된 비대면 수업에 점점 학기 초반에 가지는 마음가짐과 달리 대충 사는 모습을 개선하고자 같은 학과 동기들과 전공을 주제로 스터디를 시작했다. 이번 2학기에는 6개의 전공이 있었지만, 그 중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는 과목인 '식품미생물학'을 주제로 스터디를 계획하게 되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식품미생물학은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았고 따라서 1~3주차는 식품화학을 공부하게 되었다.

같은 학과 동기들과 함께 공부를 하다 보니 확실히 지난 학기에 비해 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성취감을 많이 느끼게 된 것 같다. 두 과목을 진행하다보니, 특히 4~6주차 파트 부분은 많이 버겁고 힘들었지만, 어차피 해야 할 내용이었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수업을 열심히 들으며 필기한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혼자 많은 내용을 정리하고 외우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었지만, 스터디를 통해 함께함으로써 더 많이 듣게 되며, 더 많이 기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터디를 통해 1회성 공부를 지양하게 되었다. 전공 공부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에 배웠던 내용이 중요한데 그동안 해왔던 공부법으로는 계속해서 새로 공부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방법이었다. 스터디는 1번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2번 반복하게 함으로써 오래 기억에 남게 하는 효과적인 공부법이라고 느꼈다.

활동은 비대면 줌과 대면을 섞어 진행했다. 함께 했던 팀원들의 경우, 같은 학과 친한 동기들끼리 진행했기 때문에 '미생'이라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역할을 부여하여 재밌게 스터디를 진행하였다. 비대면 줌은 화면 공유를 진행하며, 각자의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했고, 대면은 전달성 높은 대화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했다. 두 방법으로 스터디를 진행하며, 각자의 다른 방법들이 서로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학기에도 전공을 중심으로 스터디를 다시 한번 진행하고 싶다. 수업 내용을 필기한 것을 공유하고, 서로 어려운 점을 보완하는 모습들은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된다. 혼자서 하는 것보단 의식하고 열심히 하게 되고, 놓친 것을 채울 수 있다는 점이 스터디의 장점이라 생각한다.



스터디를 계속하게 된다면, 그동안 잘못 되었던 공부법을 개선하며 스스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혼자 공부하는 것도, 함께 공부하는 것도 모두 각자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함께 공부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혼자 공부하는 것에 적용하여 보완하며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조\*송

‘2021-2 소모임’ 활동이 모두 종료되었다.

나에게 이번 소모임 활동은 두 번째 활동이었는데, 저번 소모임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처음에는 어떻게 비대면으로 학습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여 소모임 활동을 자리잡기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고 그만큼 학습을 해야 하는 시간을 많이 뺏겨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소모임 활동에서는 지난 기억을 살려 빠르게 학습 개요를 잡고 목표를 설정하여 빠르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과 공부를 할 때는 매우 만족스러웠고, 결정적으로 기말시험에 함께 공부한 부분이 많이 출제되어서 좋았다. 또 시험을 보면서 팀원들과 함께한 시간이 매우 값졌고, 다 같이 설정한 우리의 공부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을 때 매우 큰 자신감과 행복감, 부딪힘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만약 다음 학기에도 소모임 활동을 진행한다면, 이번 활동때 했던 공부방법을 활용한다면 좋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반면, 2학년 2학기의 경우 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업이 있었기 때문에 팀원들 간 학습 시간을 맞추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고 학교에서 함께 학습을 진행할 장소가 고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를 찾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다음 소모임 때는 대면으로 진행할 경우 함께 학습할 강의실이나 장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위 소모임 활동을 다른 학부생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물론 혼자 학습을 하는 것도 자신의 공부방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만, 하나의 주제 혹은 목표를 설정하여 도달을 위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기 때문이다. 시험 결과의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협력하여 해결하고, 나아가는 학습 과정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고 공부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나의 공부방법으로 공부를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다면 위 소모임 활동을 통해 나와 꼭 맞는 공부방법을 찾고 더욱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최\*지

2021학년도 2학기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교과 스테디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처음 동기들과 함께 소모임 활동을 계획할 때부터 '미생식생'이라는 이름을 정하고는 정말 재밌어 했던 기억이 난다. 특히나 식품 미생물학1 과목을 모든 팀원들이 어렵고 생소하게 느꼈고, 그래서 함께 도우며 열심히 하자고 정했던 과목이다. 하지만 중간고사 시험을 보지 않게 되어 3회차까지는 식품화학2에 대한 내용으로 소모임을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팀원들 모두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줌으로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어 너무 만족스러웠다.

소모임 프로그램에 그동안 여러번 참여 했었는데, 이번 교과스터디 활동은 조금은 남달랐다. 비교 과로 토익스터디를 진행할 때는 해야하는 공부가 명확하다고 느꼈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팀원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교과 스터디의 경우에는 전공과목이라는 다소 부담스러운 과목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팀원들과 헤쳐나갈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다.

그렇게 각자 강의를 통해 먼저 학습을 거치고, 소모임 줌 회의를 통해 다른 팀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을 먼저 말했을 때, 그 부분을 잘 이해한 팀원이 있다면 먼저 설명을 해주었다. 그리고 각자 학습하는 방식에 따라 정리본을 만들었던 것들도 단독방이나 줌 회의의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 공유하면서, 암기해야하는 내용을 비롯해 중요한 큰 틀과 흐름을 중심으로 학습했던 것 같다.

모든 소모임 6회차를 끝으로 동기들과 좋은 기회를 통해 함께 어려운 과목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하고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꾸준히 학습법 소모임 활동에 참여하면서 차근차근 얻어갈 것들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는 것 같다.

## 팀명 : 법규법규♡

- 학과: 시보건의료학부
- 팀원: 김\*린, 박\*늘, 성\*
- 학습과목: 보건의료법규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09.28. ~ 2021.11.30.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09/28 | 19:00 ~ 22:00 | ZOOM | <p><b>학습내용</b><br/>보건의료법규 1~4주차에 해당하는 법규로서 1주차 보건 의료기본법, 2주차·3주차 의료법, 4주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에 대한 내용을 학습한다.</p> <p><b>학습방법</b><br/>스터디 전 사전에 학습한 1~3주차 내용에 대해 회독 및 필기 정리 등 개별학습 후 모임원에게 공유할 문제를 제작, 공유한다. 이후 ZOOM을 통해 스터디를 진행하며 공유된 1~3주차 내용의 문제를 풀고 오답이나 의문점에 대해 함께 풀이하며, 당일 학습한 4주차 강의에 대해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습 시에는 강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거나 수업 중 강조된 부분을 팀원과 함께 확인하고, 해당 법규의 주요 키워드나 용어 등을 정리한다.</p> |
| 10/12 | 19:00 ~ 22:00 | ZOOM | <p><b>학습내용</b><br/>보건의료법규 5~7주차에 해당하는 법규로서 5주차 국민 건강증진법, 6주차 건강검진기본법, 7주차 암관리법에 대한 내용 학습 후 시험 직전 스터디인 만큼 1~7주차에 해당하는 시험 전 범위에 대해 가볍게 정리한다.</p> <p><b>학습방법</b><br/>5~6주차 내용에 대해 모임 시각 전 각자 정리하며 개별학습을 진행, 팀원에게 공유할 문제를 제작하여 공유한다. 모임 시 ZOOM을 통해 스터디를 진행하게 되면, 5~6주차의</p>  |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               |      | <p>각자 학습한 내용 중 강조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눈 후 그 내용을 바탕으로 공유된 문제를 함께 풀이한다. 이후 당일 수강한 7주차 강의 내용을 복습한 후 8주차 중간고사를 대비하여 1~7주차 학습 내용에 대해 간단히 요약하며 시험 전략 등을 공유한다.</p>  |
| 11/09 | 19:00 ~ 22:00 | ZOOM | <p><b>학습내용</b><br/>                     보건의료법규 9~11주차에 해당하는 법규로서 9주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주차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개별학습 후 11주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강의 수강 후 복습했으며, 기말고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1주차 보건의료기본법에 대하여 다시 학습했다.</p> <p><b>학습방법</b><br/>                     모임 당일 주차였던 11주차 이전의 과목들을 미리 학습해서 소모임에서 공유하는 것은 같으나, 강의 수강 후에 해당하는 주차의 법규에 대해 문제를 내고 함께 풀이하는 방식을 삭제하고, 함께 법규를 소리 내 읽으면서 필기 내용이나 기억에 남아 있는 설명, 본인이 이해한 바를 말로써 전달(발표 형식)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진행했다.</p>   |
| 11/30 | 19:00 ~ 22:00 | ZOOM | <p><b>학습내용</b><br/>                     보건의료법규 12~14주차에 해당하는 법규로서 12주차 모자보건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3주차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14주차 장애인 건강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학습하고 기말고사 직전 모임이자, 마지막 4회차인 만큼 시험 전 범위 중 용어(정의)에 대해 다시 정리했다.</p> <p><b>학습방법</b><br/>                     3회기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문제풀이를 없애고, 줌으로 필기와 학습 내용을 공유하면서 자신이 담당한 부분에 대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기존에 법규를 요약하던 부분 역시 요약의 의미가 크게 없다고 판단하여 없애고, 대신 약 15개 법규에 등장하는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법규의 내용 중 정의를 다시 정리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다.</p> |

## ○ 활동 소감

### ▶ 종합 의견

#### 1. 활동 소감

스터디를 줌으로 하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하고 걱정이 됐는데, 오히려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또 자주, 언제든지 늦은 시간이더라도, 또 적당한 학습방법을 찾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동기들과 매주 서로 응원하며 소통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하는 과정을 보낼 수 있었다. 법규 과목 자체가 수강 인원이 적어서 자칫 서로를 경쟁상대로 볼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서로 이끌어주면서 함께 무기력을 이겨내고, 모임을 진행한다는 것에 있어서 책임감을 갖고 수업을 듣게 되고, 한 회기의 모임이 끝나면 무척 뿌듯하고. 스터디를 통해 어렵기만 한 법규 공부를 하면서도 성취감을 느끼게 해줘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성적이 어떻든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 2. 도움된 점

매주 스터디를 진행하고 과제를 정하고, 서로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며 잘 하고 있나 감시하고. 이런 과정이 해당 주차의 수업을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복습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이 스터디를 진행했기에 얻은 가장 큰 이점이었다고 생각한다. 법규 과목 특성상 분량도 많고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암기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큰 틀을 그리고 또 각 조항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했다.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만들어 같이 풀어보기도 하고, 자신이 보기에 중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공유하며 짚고 넘어가는 등 팀원 각자의 관점에서 법규를 읽어내려 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큰 도움이 되었었다.

물론 시험을 앞둔 상태에서 진행된 2회기와 4회기 모임에서는 약 3시간 정도의 스터디 시간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고, 의미 없는 모임이면 어떡하나 느껴지는 시간적인 압박감에 더 부담되긴 했지만, 오히려 시간에 맞춰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고, 스터디 시간 외의 시간엔 다른 과목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었다.

친한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진행한 덕분에 다 같이 잘 참여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고 했기 때문에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등 팀원을 통해 혼자라면 어려웠을 문제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었다.



2021 학년도 2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 II. 비교과 스터디

- 비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 비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1. 18학번의 검할 스터디
  2. C2Y1
  3. 토익열차





## ○ 비교과 스터디 완료 명단

| 팀명                   | 팀원  | 학과      |
|----------------------|-----|---------|
| 18학번의 컴활 스터디<br>(우수) | 한*지 | 데이터경영학과 |
|                      | 노*후 | 데이터경영학과 |
|                      | 조*상 | 데이터경영학과 |
| C2Y1<br>(우수)         | 윤*아 | 상담심리학과  |
|                      | 최*영 | 바이오공학과  |
|                      | 최*령 | 식품생명공학과 |
| 토익열차<br>(우수)         | 김*림 | 시보건의료학부 |
|                      | 김*린 | 시보건의료학부 |
| 엑셀 마스터               | 김*희 | 약학과     |
|                      | 이*민 | 약학과     |
|                      | 임*연 | 약학과     |
|                      | 송*영 | 약학과     |
|                      | 문*인 | 약학과     |
|                      | 강*망 | 약학과     |
| 대진필                  | 박*원 | 상담심리학과  |
|                      | 김*성 | 상담심리학과  |
|                      | 최*림 | 상담심리학과  |
|                      | 최*진 | 상담심리학과  |
| 코딩을 아시나요             | 장*영 | 약학과     |
|                      | 김*정 | 약학과     |
|                      | 박*현 | 약학과     |
|                      | 박*희 | 약학과     |
|                      | 서*연 | 약학과     |
| 니혼go!                | 손*나 | 약학과     |
|                      | 임*영 | 약학과     |
| 영상상덕하기               | 편*원 | 의료홍보미디어 |
|                      | 구*휘 | 의료홍보미디어 |
|                      | 김*연 | 의료홍보미디어 |

| 팀명        | 팀원  | 학과      |
|-----------|-----|---------|
|           | 이*원 | 의료홍보미디어 |
|           | 이*한 | 의료홍보미디어 |
|           | 편*희 | 의료홍보미디어 |
| 우아한 약사모임  | 안*빈 | 약학과     |
|           | 윤*원 | 약학과     |
|           | 태*정 | 약학과     |
|           | 김*현 | 약학과     |
| 컴컴컴       | 유*위 | 약학과     |
|           | 안*민 | 약학과     |
| (컴)활기 CHA | 이*경 | 데이터경영학과 |
|           | 김*현 | 데이터경영학과 |
|           | 노*정 | 데이터경영학과 |
|           | 박*주 | 데이터경영학과 |
| gotCHA    | 강*기 | 약학과     |
|           | 곽*구 | 약학과     |
|           | 남*원 | 약학과     |
|           | 박*욱 | 약학과     |
|           | 최*우 | 약학과     |
|           | 김*안 | 약학과     |
|           | 김*온 | 약학과     |
| 오므라이스     | 정*주 | 바이오공학과  |
|           | 지*서 | 바이오공학과  |
|           | 이*윤 | 바이오공학과  |
|           | 이*연 | 바이오공학과  |
| 분차토익부차    | 이*정 | 약학과     |
|           | 김*우 | 약학과     |
|           | 박*람 | 약학과     |
|           | 손*나 | 약학과     |
|           | 정*정 | 약학과     |
| Again990  | 김*주 | 약학과     |
|           | 고*영 | 약학과     |
|           | 오*정 | 약학과     |

| 팀명          | 팀원  | 학과      |
|-------------|-----|---------|
|             | 이*혜 | 약학과     |
|             | 정*경 | 약학과     |
|             | 최*웅 | 약학과     |
|             | 홍*택 | 약학과     |
| 토린이들        | 이*빈 | 식품생명공학과 |
|             | 송*지 | 식품생명공학과 |
| 최강 소모임      | 기*윤 | 약학과     |
|             | 최*현 | 약학과     |
|             | 장*린 | 약학과     |
| 토익, 면접!     | 이*현 | 상담심리학과  |
|             | 박*원 | 상담심리학과  |
|             | 이*혜 | 상담심리학과  |
|             | 임*민 | 상담심리학과  |
| 주텐탁         | 이*현 | 약학과     |
|             | 김*솔 | 약학과     |
|             | 문*주 | 약학과     |
|             | 송*심 | 약학과     |
|             | 이*연 | 약학과     |
|             | 조*정 | 약학과     |
| VINITUS가보자고 | 권*현 | 약학과     |
|             | 김*경 | 약학과     |
|             | 민*기 | 약학과     |
|             | 박*  | 약학과     |
|             | 이*지 | 약학과     |
|             | 한*훈 | 약학과     |
|             | 이*주 | 약학과     |
| 목표는 990     | 김*미 | 약학과     |
|             | 최*희 | 약학과     |
|             | 박*연 | 약학과     |
|             | 윤*연 | 약학과     |

## ○ 비교과 스터디 우수팀 활동 사례

### 팀명 : 18학번의 컴활 스터디

- 학과: 데이터경영학과
- 팀원: 노\*후, 조\*상, 한\*지
- 학습주제: 컴퓨터활용능력 1급
- 학습장소: ZOOM, SKYPE
- 학습 기간: 2021.10.01. ~ 2021.11.28.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10/01 | 21:00 ~ 22:00 | ZOOM,<br>SKYPE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 소개                          |
| 10/10 | 19:00 ~ 22:00 | ZOOM,<br>SKYPE |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제 1과목 컴퓨터 일반 학습 및 모의고사 문제풀이 |
| 10/31 | 20:00 ~ 22:00 | ZOOM,<br>SKYPE |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제 2과목 스프레드시트 학습(1)          |
| 11/12 | 21:00 ~ 22:00 | ZOOM           |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제 2과목 스프레드시트 학습(2)          |
| 11/21 | 18:30 ~ 22:00 | ZOOM           |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필기: 제 3과목 데이터베이스 학습 및 모의고사 문제풀이 |
| 11/28 | 19:30 ~ 22:00 | ZOOM           |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

## ○ 활동 소감

## ▶노\*후

학습법 소모임을 시작할 때 선발팀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늦어지면서 처음 계획했던 일정 대로 활동을 이어나가기가 어려워 소모임 목표를 기존의 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을 완전히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필기시험 합격으로 축소하여 진행했던 점이 아쉬웠다. 혼자서 시도했다라면 여러 개인 사정을 핑계로 자격증 취득을 뒤로 미루었을 텐데 친구들과 함께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매주 학습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공부하니 공부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고, 그 결과가 필기 합격까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번 학습법 소모임 활동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실기시험 응시까지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필기시험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어 목표했던 바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 아주 만족스러웠다.

## ▶조\*상

컴퓨터 활용능력 필기 1급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에게 친숙한 컴퓨터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면 과연 컴퓨터의 몇 퍼센트나 활용할 수 있을까? 컴퓨터 활용능력을 공부하면서 컴퓨터를 이루는 각각의 부품과 기능, 소프트웨어 등을 배우고 엑셀과 문서작업에 유용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컴퓨터에 대해 몇 단계 더 나아가고 친숙해질 수 있었다.

스터디를 진행하기 이전에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해주는 여러 혜택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탐색해보거나 이용한 적은 없었다. 그러던 중 스터디 모임을 통해 처음으로 학습지원 관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학생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종 자격증 시험에 대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혹은 취미로 배울 수 있는 여러 강의들이 있었다. 스터디를 참여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알아보지 않았을 텐데 덕분에 유용한 정보를 얻은 것 같아 뿌듯했다.

매주 스터디 모임을 가지면서 함께하는 학우와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다. 비록 대면 모임을 통해 직접적으로 모이지는 못했지만, 비대면이더라도 서로의 얼굴을 보고 만나면 안부를 묻곤 했다. 스터디를 진행하며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진도를 정해 함께 공부하였고 어려운 부분이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짚어주며 서로의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했다. 개념에 대한 숙지가 마무리되면 시간 제한을 두고 각자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오답에 대해 살펴보면 내용 숙지를 더 단단하게 하고자 했으며 스터디 모임이 종료되면 다음 모임이 시작되기 전까지 학습할 진도를 계획하고 일주일의 시간 동안 각자가 공부한 분량과 그것에 대한 인증을 사진으로 남겨 서로 공부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도록 노력했다.

함께 스터디를 진행한 학우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스스로 리더 역할을 맡아 스터디 모임을 이끌어주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큰 도움을 준 학우와 학습 내용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스터디 모임에서 여러 개념들을 짚어준 학우가 있었다. 학기 중에 학업을 병행하면서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힘들 때마다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학우들 덕분에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획된 진도를 모두 마친 후에는 각자 시험을 보았고 시험장에 가는 순간 까지 서로 응원해주며 큰 힘이 되었다. 시험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긴가민가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모두가 만족스러웠다. 스터디에 참여한 모든 인원들이 시험에 합격했고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평소 부족한 공부량이나 자격증에 대한 도전 한번 없었던 나에게 이번 스터디 모임은 나름의 큰 도전이었지만 스터디를 통해 지식을 쌓고 동시에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었다.

▶한\*지

코로나19로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다보니 각 지역이 다른 동기들과 만날 가능성이 적었고 그로 인해 수업을 같이 듣지 않는 한 소통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 그렇게 마지막 학기가 되었다는 아쉬움과 1학년 당시 학습법 소모임에 참여하였으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점이 후회되었기에 동기들과 추억을 쌓기 위해 모두가 관심 있는 자격증인 컴퓨터활용능력 1급으로 비교과 스터디 학습법 소모임을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막상 스터디 모임을 시작하니 컴퓨터활용능력 1급 공부를 학업과 병행하면서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학기 복학한 학우의 시간표와 모두의 시험 기간을 고려하다보니 계획서에 작성했던 실기까지 진행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필기만이라도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이 점이 아쉬웠다. 이번에 튜터의 역할을 처음 맡다보니 다소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터디 모임 때마다 내준 과제와 예습을 해 오며 잘 따라와 줘서 고마웠고 학업과 병행하기 힘들었을텐데, 다들 필기시험에 합격해주어서 정말 자랑스러웠다. 비록 ZOOM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진행하지 못했으나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서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고 스터디 모임을 진행할 수 있어서 의미있는 학기였다.

## 팀명 : C2Y1

- 학과: 상담심리학과, 바이오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 팀원: 윤\*아, 최\*영, 최\*령
- 학습주제: JLPT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09.11. ~ 2021.11.27.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09/11 | 20:30 ~ 21:33 | ZOOM | N3 교재 기준 70,71쪽 단어를 바탕으로 네이버 품 단어 시험을 쳤다. 공유한 계획표에 따라 다음 모임 때까지 과제를 풀어본 후 학습과제 양의 적절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또한 JLPT 접수를 각자 하고 접수증을 카톡으로 보내 시험 접수를 확인하기로 했다.   |
| 09/18 | 20:30 ~ 21:20 | ZOOM | 9.13~9.17 학습한 단어 71~73, 151쪽을 바탕으로 단어 시험을 치고 첫 모임 때 논의했던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9.13~9.17 학습한 단어와 분량이 적절한지 얘기를 나눠 현재처럼 25~30 단어면 적절한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온라인 품 단어 시험 결과와 개선점에 대해 토의하고 오답노트를 추가로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결과, 오답노트는 하지 않기로 했다. |
| 09/25 | 20:30 ~ 22:30 | ZOOM | 9.20~9.24 한 주간 학습한 단어 74~77, 151쪽을 바탕으로 만든 단어 시험을 보고, 풀었던 문제 중에 몇 문제를 골라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어떤 보완점이 필요할 것인지 오답 풀이를 했다.  |
| 10/02 | 21:40 ~ 22:47 | ZOOM | 한 주간 학습한 N3 교재 60, 78~83, 152쪽 단어를 바탕으로 단어시험을 보며 시작했다. 고득점으로 단어시험을 통과하였고 이후 조원들이 풀었던 문제를 토대로 오답 풀이를 했다. 오답 풀이는 문법 부분 11문제 등을 틀린 이유를 분석하고 맞는 답을 다시 찾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10/09 | 20:30 ~ 21:30 | ZOOM | 단어 쪽을 바탕으로 만든 단어시험을 치고 10.4~10.8 동안 학습한 분량 중 틀린 문제는 오답풀이를 했다. 중간고사 전 주와 중간고사 주간에는 모임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
| 10/23 | 13:20 ~ 16:10 | ZOOM | 단어시험을 치고, 실제 시험 시작 시간에 맞춰 제 1회 실전모의고사를 풀고 채점하여 각자 부족한 부분을 파악했다.  |
| 10/30 | 20:40 ~ 21:30 | ZOOM | N3 교재 63, 88~92, 153쪽 단어로 만든 단어시험을 쳤다. 이후 문법 문제 등 준비했던 오답을 ZOOM을 통해 설명, 분석했다.  |
| 11/20 | 20:30 ~ 21:27 | ZOOM | 10.30 모임에서 '단어시험이 더 어려워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전보다 문제 종류를 다양하게 출제한 단어시험을 쳤다. 단어시험 범위는 84~106, 153~154, 147~148쪽이었다. 이후 한 주간 풀었던 문제 중에 틀렸던 문제를 중심으로 오답풀이를 했다. |
| 11/27 | 17:00 ~ 19:36 | ZOOM | 먼저 단어 시험을 10분간 치고 시험 시간을 재가며 실제 시험처럼 2회차 실전모의고사를 풀었다. 채점한 뒤 1회 때 실전모의고사 점수와 결과를 비교했다.  |

○ 활동 소감

▶윤\*아

이번 비교과 소모임의 목적은 '2021.12.5.에 실시되는 JLPT N2 혹은 N3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JLPT는 결과를 바로 알 수 있는 시험이 아니어서 본래 목적의 일부분만 달성하게 되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9주간 계획표에 따라 문제를 풀고, 오답 준비를 하고 단어시험을 만드는 등 소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방법과 모임을 꾸려나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 또한 독학할 때는 문제 푸는 양이 지지부진했는데, 소모임을 진행하기 위해 꾸준히 문제를 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 문제집 한 권을 끝내게 되었다. 학원을 다녔을 때도 3개월 만에 문제집 한 권을 다 끝내진 않았기 때문에 부듯하고 좋았다.

개인적으로 대학 졸업 전까지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해서 JLPT N2 이상을 따고 졸업하는 게 새내기 때 세운 소소한 목표였는데 '혼자서 어영부영 힘들게 독학하지 말고 일찍이 소모임을 통해 준비했다면 이 목표를 이루고 졸업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는다. 그리고 팀장으로서 소모임 조원의 단어실력 향상에 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도 남는다.



마지막으로 시간표 앱 커뮤니티에서 처음 보는 사이로 만났는데, 한 학기 동안 한 명도 빠짐없이 매 모임마다 참가해 함께 공부했던 팀원들에게 고맙다. 다들 앞으로 즐거운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최\*영**

처음으로 JLPT 시험을 봐서 긴장했고, '시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앞섰다. 그렇지만 시험을 보고 나서는, 오히려 결과에 대한 걱정보다 소모임에 참여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팀원 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기에 시험까지 무사히 치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소모임을 활용하지는 않았는데, 같은 목표를 갖고 서로 응원하고 조언하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소모임을 통해서도 계속 공부해보고 싶다고 느꼈다.

최종적인 목표는 졸업 전까지 N1을 합격하는 것인데, 이번에 N3 시험을 보면서 문자·어휘 부분을 계속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히라가나와 문맥을 보고 적절한 한자를 고르거나, 그 반대의 문제를 가장 많이 틀려서 시험이 끝나도 쉬지 않고 틈틈이 단어를 암기해야겠다고 느꼈다.

마지막으로, N3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분들의 합격 수기를 보면서 내 공부법은 어땠는지 되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느꼈다.

▶**최\*령**

올해 처음으로 학습 소모임을 하였는데 주기적으로 함께 공부한 내용을 점검하고 모르는 점을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점이 좋았다. 학기 중에는 시간에 쫓겨 학습시간이 부족하여 노베이스로 시작하여 이번에 자격증 취득하는 건 무리일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겨울 방학에 예정된 스터디 그룹에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기로 상의하였다.

## 팀명 : 토익열차

- 학부: 시보건의료학부
- 팀원: 김\*림, 김\*린
- 학습주제: TOEIC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09.24. ~ 2021.11.19.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09/24 | 13:00 ~ 15:00 | ZOO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실력 파악 및 단어 암기, 기본 문법 설명, 이해가 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li> <li>- 모임을 진행하기에 앞서, 교재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문제집' 1회차를 풀고 기초 실력 및 부족한 부분을 확인했고, 앞으로의 모임 계획을 의논했다.</li> </ul>            |
| 10/01 | 13:00 ~ 15:00 | ZOO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익 주요 문법 설명 및 질의응답, 주요 빈출 표현 및 상황 정리, 파트 1~7 오답 위주의 풀이</li> <li>- 그동안의 공부량을 확인하고, 주요 빈출 문법, 표현, 상황 등을 정리해, 기출문제집의 문제로 여러 번 반복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li> </ul>                 |
| 10/29 | 13:00 ~ 15:00 | ZOO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익 주요 문법 및 필기 공유, 파트2, 파트7 지문 풀이 및 질의응답</li> <li>- 1, 2, 3회차 모임 전 풀었던 기출문제집의 파트 2, 파트 7을 다시 보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골라 다시 풀이했고,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빠른 속도로 근거 찾기 등을 연습했다.</li> </ul> |
| 11/19 | 13:00 ~ 15:00 | ZOO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풀이 및 최종 정리, 단어 암기, 토익 실전 팁 공유</li> <li>- 최종 모의 테스트를 진행하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위주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마지막으로 토익 실전에서 필요한 팁들을 공유하며 모임을 마무리했다.</li> </ul>               |

## ○ 활동 소감

## ▶김\*린

종강할 때마다 다짐하고, 또 미루게 되는 토익 공부, 이번엔 진짜 해보자는 마음으로 동기와 토익 소모임을 시작했다. 처음엔 너무 과한 계획이 아닐까, 이번에도 실패하는 게 아닐까 했지만, 그래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공부시간을 공유하며 진행해서인지, 마구 자극을 받아, 공부를 하게 됐다. 약 한 달 동안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새로운 공부 방법들을 익힐 수 있었다는 것이 좋았다. 평소 나는 단순히 문제집을 사서 풀고, 틀린 문제의 풀이를 살펴보고 있었는데, 동기의 오답노트 작성법이라던가, 단어를 암기할 때 또는 듣기를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등 자세하고 실용적인 공부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항상 토익 시험을 볼 때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은 문제도 거의 읽지 못하고 대충 찍어 제출했었는데, 활동마다 모의 테스트를 풀면서, 풀지 못하는 문제의 개수가 점차 줄어들어 드는 걸 느꼈다. 소모임을 같이 진행하자고 해준 동기에게 정말 고맙고, 너무나 알찬 2학기였다.

## ▶김\*림

늘 이번에는야말로 토익점수를 제대로 올려보려고 결심했었지만, 혼자서 공부하다보니 의지도 잘 안잡히고 결국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는 정말 원하는 목표 점수를 이루고 더 이상 토익을 애매하게 붙잡고 있지 말자는 생각으로 소모임을 시작했는데, 내 생각보다 훨씬 관리도 잘 되고 의지를 북돋우며 2학기 내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일방적으로 인강을 들을 때와는 달리 공부 방식을 서로 교정해줄 수 있으니 혼자 공부할 때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점수가 상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하여, 항상 시간 부족의 문제에 시달리고 파트 7의 독해력 요구 유형은 전혀 손대지 못했었는데, 4회차에서 공유한 시간 절약팁이나 소모임 내내 진행했던 취약 유형 질의응답이 근본적인 독해력 상승과 점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소모임을 통해 점수 향상과 영어 실력을 둘 다 알차게 챙길 수 있었던 것 같아 부듯하다.

## ▶종합 의견

스터디 내내 매 주차 목표한 만큼의 공부량에 도달하였고, 계획한 학습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었다. 또한, 초반에는 더딘 점수 상승을 보였지만, 3주차부터는 두 팀원 모두 안정적으로 800점대에 진입하여 탄탄하게 실력을 쌓아갔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직접 대면하지 못하고 줌으로만 의견을 나누고 스터디를 진행하니 처음에는 이 스터디가 흐지부지될까 걱정이 많았지만, 주기적으로 카톡방에 공부한 내용을 올리고 스터디 규칙을 세우며, 지키지 않을 시의 공약을 내세우고 시작하니 서로 더욱 더 계획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 같다. 뿐만 아니라, 매 주차 진행된 취약유형 질의응답을 통해 다수가 많이 틀리고 헛갈려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 모든 난이도의 문제를 알게 훑고 지나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문제 풀이 방식을 교정하고,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 있었다. 계획적인 스터디를 통해 기초적인 독해력을 탄탄히 하고, 이해를 토대로 점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어 두 팀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스터디를 하면서 얻게 된 효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해짐

: 약 두 달 동안 주기적으로 모임을 진행하다 보니, 한 번 공부할 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토익 공부의 양이나, 그 양을 공부하는 데 할애해야 하는 시간, 평소보다 더 노력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파트 등을 알게 되고, 반복적인 모임으로 자신의 현재 실력과 학습 습관 등을 객관적으로 보며, 필요한 것을 계획해 학습하는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해졌다.

② 토익 공부에 부담이 적어짐

: 모임을 하면서도 '억지로 하지 말자, 필요해서 하는 거고, 도움이 되니까 하자'라고 서로 격려하며 진행했고, 서로 부담이 되지 않게 자신만의 공부 계획, 방법을 존중하는 자기주도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강박이나 의무감에 스트레스 받으며 공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항상 미루고, 문제집을 사고 1회차만 풀어보고 말던 습관이, 같이 응원하며 학습함으로써 완전히 변화되었다.

③ 효율적인 토익 공부 방법을 알게 됨

: 각자의 공부 방법을 고수하면서도, 모임 때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서로의 공부 방법을 공유했다. 자신의 공부 방법 중 불편한 부분 등을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했고, 같이 해결책을 찾아 다음 모임 때까지 시도해보는 등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실제로 많이 알려진 오답노트 작성법이 오답의 수가 많은 우리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느꼈고, 여러 시도 끝에 최소한의 시간을 들이는 간단한 오답공부법을 채택했다.

④ 토익성적이 향상됨

: 사실 둘 다 토익 시험을 쳐 본 경험이 많지 않고 처음 쳐본 토익 점수가 낮은 편이라서 소모임 이후의 점수 향상 폭이 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1회차 모임 때 기존 실력확인을 위해 진행했던 모의 테스트 점수 (710점 / 723)에 비해 마지막 4회차 (845점 / 815점) 모의테스트 점수가 눈에 띄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의 테스트는 정기 시험과 시험장 분위기나 음원 크기 등이 차이남을 감안해도, 소모임의 성과는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동기와 함께 체계적인 계획 하에 소모임을 진행하니 다양한 학습 효과를 내며 제대로 된 토익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구성원 모두가 만족하고, 생각한 것보다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던 소모임이라 정말 좋은 시간이자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기타 의견

우선, 우리 소모임만의 특징은 서로의 학습 방식을 체크하고 교정하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단순히 틀린 문제를 오답하고, 해설지를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왜 점수가 떨어지고, 왜 이 문제를 틀리는지 분석하기 위해 먼저 토익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였다. 하여, 효과는 적은데 시간은 많이 드는 잘못된 방식을 채택한 팀원은 소모임 1회차에 진행하였던 학습법 공유를 통해 자신의 방식이 비효율적임을 자각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 새로운 학습법을 채택했다.

또한, 우리 소모임은 어떤 소모임보다 많은 토익 실전 팁을 공유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1회차 모임부터 시간 부족이 낮은 점수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는 시간 절감과 효율적인 문제 풀이를 위해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강의를 참고하여 많은 팁들을 공부하였고, 소모임 시간에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적용해보는 연습을 해보았다. 실제로 모의 테스트에서 큰 점수 향상을 이룬 것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팁들을 서로 공유하고, 적용하여 풀이하는 연습을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질의응답을 통해 세세한 부분까지 모른다면 최대한 서로 설명해주고, 설명을 들으려 했기 때문에 소모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었던 것 같다.



2021 학년도 2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 III. 전공 튜터링

- 전공 튜터링 완료 명단
- 전공 튜터링 우수팀 활동 사례
  1. 뇌가 쑥쑥 발달하는 심리학 튜터링
  2. 진핵생물들
  3. 히암술터즈





## ○ 전공 튜터링 완료 명단

| 팀명                      | 팀원  | 학과     |
|-------------------------|-----|--------|
| 뇌가 쑥쑥 발달하는 심리학 튜터링 (우수) | 서*혁 | 상담심리학과 |
|                         | 나*지 | 상담심리학과 |
|                         | 안*숨 | 상담심리학과 |
| 진핵생물들 (우수)              | 김*정 | 약학과    |
|                         | 곽*구 | 약학과    |
|                         | 김*정 | 약학과    |
|                         | 김*안 | 약학과    |
|                         | 김*본 | 약학과    |
|                         | 유*리 | 약학과    |
|                         | 정*희 | 약학과    |
|                         | 최*준 | 약학과    |
| 히암술터즈 (우수)              | 황*재 | 상담심리학과 |
|                         | 강*인 | 상담심리학과 |
|                         | 김*경 | 상담심리학과 |
|                         | 김*우 | 상담심리학과 |
|                         | 손*미 | 상담심리학과 |
|                         | 한*웅 | 상담심리학과 |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조제학(꼬꼬조)     | 김*주 | 약학과    |
|                         | 고*영 | 약학과    |
|                         | 오*정 | 약학과    |
|                         | 이*혜 | 약학과    |
|                         | 최*웅 | 약학과    |
|                         | 홍*택 | 약학과    |
|                         | 정*경 | 약학과    |
| Champion                | 황*  | 약학과    |
|                         | 강*기 | 약학과    |
|                         | 김*온 | 약학과    |
|                         | 남*원 | 약학과    |
| 에블 준다                   | 최*우 | 약학과    |
|                         | 김*정 | 바이오통학과 |
| 약치 과외하기 ver.국시          | 강*용 | 바이오통학과 |
|                         | 김*우 | 약학과    |
| 병태무야호~                  | 유*운 | 약학과    |
|                         | 이*현 | 약학과    |
|                         | 최*빈 | 약학과    |
|                         | 한*훈 | 약학과    |
|                         | 이*연 | 약학과    |
|                         | 장*린 | 약학과    |
|                         | 최*현 | 약학과    |
| 정신CHA리자                 | 허*현 | 약학과    |
|                         | 김*민 | 간호학과   |
|                         | 김*현 | 간호학과   |

| 팀명         | 팀원  | 학과      |
|------------|-----|---------|
| 우리인생이지     | 김*현 | 약학과     |
|            | 채*은 | 약학과     |
|            | 유*리 | 약학과     |
|            | 장*용 | 약학과     |
|            | 안*영 | 약학과     |
|            | 김*본 | 약학과     |
|            | 박*욱 | 약학과     |
| 아임파인       | 김*솔 | 약학과     |
|            | 조*정 | 약학과     |
|            | 김*경 | 약학과     |
|            | 김*연 | 약학과     |
|            | 이*민 | 약학과     |
| 암갯잇        | 김*혜 | 약학과     |
|            | 김*연 | 약학과     |
|            | 김*환 | 약학과     |
| 인생공부하는 동물원 | 송*주 | 약학과     |
|            | 김*우 | 약학과     |
|            | 김*희 | 약학과     |
|            | 임*정 | 약학과     |
|            | 정*지 | 약학과     |
|            | 이*연 | 약학과     |
|            | 안*빈 | 약학과     |
| 설빙약치점      | 박*  | 약학과     |
|            | 박*연 | 약학과     |
| 복약지도       | 김*미 | 약학과     |
|            | 윤*연 | 약학과     |
|            | 이*주 | 약학과     |
|            | 최*희 | 약학과     |
|            | 윤*원 | 약학과     |
| 22년에는진짜조제  | 김*현 | 약학과     |
|            | 정*은 | 약학과     |
|            | 정*정 | 약학과     |
|            | 태*정 | 약학과     |
|            | 변*민 | 바이오통계학과 |
| 세포정복       | 최*진 | 바이오통계학과 |
|            | 이*호 | 의생명과학과  |
| 개미스트리      | 최*희 | 의생명과학과  |
|            | 윤*연 | 의생명과학과  |
|            | 한*희 | 의생명과학과  |
|            | 이*은 | 의생명과학과  |
|            | 원*웅 | 약학과     |
| 생약정보통      | 이*우 | 약학과     |
|            | 조*진 | 약학과     |
|            | 조*현 | 의생명과학과  |
| New Run    | 이*린 | 의생명과학과  |
|            | 안*운 | 의생명과학과  |
|            | 이*교 | 의생명과학과  |
|            | 장*희 | 의생명과학과  |
|            |     |         |

## ○ 전공 튜터링 우수팀 활동 사례

### 팀명 : 뇌가 속속 발달하는 심리학 튜터링

- 학과: 상담심리학과
- 튜터: 서\*혁
- 튜티: 나\*지, 안\*숨
- 학습과목: 발달심리학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11.26. ~ 2021.12.16.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11/26 | 18:00 ~ 19:40 | ZOO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주제: 영아기의 발달과 유아기의 발달</li> <li>• 학습 목표: 영아기와 유아기의 발달적 특징에 대한 이해와 주요 개념 습득</li> <li>• 학습 내용: 영아기의 신체발달 &gt; 영아기의 인지 발달 &gt; 영아기의 언어 발달 &gt; 영아기의 사회 정서 발달 &gt; 유아기의 신체발달 &gt; 유아기의 인지 발달 &gt; 유아기의 언어 발달 &gt; 유아기의 사회 정서 발달</li> <li>• 진행 방법: 영아기와 유아기의 발달적 특징을 비교해볼 수 있도록 신체발달의 특징, 인지발달의 특징, 언어 발달의 특징, 사회 정서 발달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여 비교하며 학습을 진행</li> </ul> |
| 11/28 | 20:00 ~ 21:50 | ZOO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주제: 아동기의 발달</li> <li>• 학습 목표: 유아기의 발달과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아동기의 발달적 특징에 대한 학습</li> <li>• 학습 내용: 아동기의 신체발달 &gt; 인지발달 &gt; 언어 발달 &gt; 사회 정서 발달</li> <li>• 진행 방법: 영아기와 유아기의 발달 흐름에 맞추어 유아기의 발달을 학습, 유아기만의 독특한 발달적 특징을 파악하여 학습하였고, 청년기로 이어지는 개념들을 먼저 확</li> </ul>  |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               |      | 실하게 잡아가며 학습, 모르는 부분은 서로 문답하는 형태로 진행   |
| 12/15 | 18:30 ~ 21:00 | ZOO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주제: 청년기의 발달, 성년기의 발달</li> <li>• 학습 목표: 청년기의 심리 변화와 신체발달, 성년기의 심리 변화와 직업적 특성에 대한 학습</li> <li>• 학습 내용: 청년기의 신체발달 &gt; 인지발달 &gt; 자아정체감 발달 &gt; 사회적 관계 &gt; 심리적 부적응&amp;청소년 비행 &gt; 성년기의 신체발달 &gt; 인지발달 &gt; 직업발달 &gt; 성격&amp;사회성 발달 &gt; 가족생활</li> <li>• 진행 방법: 청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습, 청소년 비행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며 진행, 개념을 학습하며 학생들이 자주 헛갈리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주며 진행</li> </ul>            |
| 12/16 | 17:00 ~ 19:30 | ZOO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주제: 중년기의 발달, 노년기의 발달</li> <li>• 학습 목표: 직업에서의 마지막과 인생에서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li> <li>• 학습 내용: 중년기의 신체변화 &gt; 인지변화 &gt; 직업발달과 직업전환 &gt; 성격과 사회성발달 &gt; 가족생활 &gt; 노년기의 신체변화 &gt; 인지변화 &gt; 직업발달과 직업전환 &gt; 성격과 사회성발달 &gt; 가족생활 &gt; 인생의 마무리</li> <li>• 진행 방법: 중년기가 청년기 이후의 또 다른 과도기라는 것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였으며, 은퇴, 죽음 등 다양한 과업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인지, 가족, 정서적 측면의 변화들과 연관 지어 학습을 진행</li> </ul> |

○ 활동 소감

▶튜터 서\*혁

발달심리학이라는 교과목 자체가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가 매우 어려운 과목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이 많은 내용을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 흐름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잡아두고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훨씬 체계적으로 튜터링을 준비해야 했고, 그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최대한 표와 사례 등 한눈에 알아보고 비교하기 쉬운 자료들을 활용했고, 멘티들이 모르는 부분을 바로바로 보충해주기 위해서 문답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진행하는 튜터링이었던 만큼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4회기의 튜터링 시간 동안 모든 내용을 넣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정리해야 할 프린트도 많아졌고, 조금씩

빠르게 진행되었던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핵심 개념 위주로 자세하게 학습을 진행할 수 있었고, 모르는 개념은 부가 설명을 해주며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3명의 인원으로 진행된 소규모 튜터링이었던 만큼 문답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도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답하는 것 자체가 공부한 내용을 장기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첫 시간부터 적극적으로 문답하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튜티 친구들 또한 많은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문답을 적극적으로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주입식으로 튜티가 배우는 것이 아닌 주도적이고 서로 배워가는 튜터링이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튜티 친구들 모두 학습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주어서 총 4회기의 튜터링이 무사히 끝난 것 같습니다. 학습의 결과 또한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튜터링을 진행한다면 심리학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튜티 나\*지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확실하게 몰랐던 부분이나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이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입니다. 그뿐 아니라 서로 문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다보니 혼자서 암기하는 것보다 더 암기하는데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튜티 안\*숨

인간 전 생애의 발달을 공부하면서 연속선상에서 생각하고 학습해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튜터링 학습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하며 공부하다 보니 어렵지 않게 정리된 내용으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고, 자신의 학습법을 공유하면서 학습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을 해나가는 과정과 방법도 배울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타 의견

저희가 튜터링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바로 ‘질의응답 형태의 스터디’였습니다. 튜터링이라고는 하지만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운 내용을 저장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기억을 저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질의응답’ 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발달심리학이라는 교과목의 특성상 발달의 흐름을 파악하고 비교분석 할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표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튜터링을 진행하기에 앞서 핵심 내용과 표를 정리한 프린트를 나누어주고 그 프린트를 보며 진행했습니다. 튜터는 활동 전, 이 프린트의 내용을 정독하고, 모르는 개념은 전공 교재와 인터넷을 활용해 정리해둔 후 그 내용을 튜티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튜티 또한 프린트 속에서 부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 혹은 튜터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충해주었으며, 활동 전 학습할 내용을 훑어보고 오는 등 의욕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팀명 : 진핵생물들

- 학과: 약학과
- 튜터: 김\*정
- 튜티: 곽\*구, 김\*정, 김\*안, 김\*본, 유\*리, 정\*희, 최\*준
- 학습과목: 미생물학II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09.16. ~ 2021.12.03.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09/16 | 13:00 ~ 17:00<br>(2회 진행) | ZOOM | <p>DNA 재조합 기술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팀원 모두 인강을 들어 예습을 해온 후 서로 궁금했던 점, 몰랐던 점에 대해 질문을 하고 같이 답을 찾아나갔습니다. 그 중 PCR의 원리에 대해 다같이 자료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였고 digital, real-time PCR에 대해 심화학습까지 나아갔습니다.</p> <p>클로닝 벡터에 대해 암기하였습니다. 종류가 많고 종류별 벡터의 사이즈와 예시, 특징까지 외워야하기 때문에 암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다같이 아이디어를 내어 외우기 쉬운 암기법을 고안하였습니다. 또한 미생물 감염 경로나 항생제 퀴즈도 진행하여 각자 매일 꾸준히 암기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했습니다.</p> |
| 10/14 | 13:00 ~ 14:00<br>(2회 진행) | ZOOM | <p>본격적으로 중간고사를 대비하기 위해 말로만 보던 퀴즈를 글로 작성하여 프린트하여 시험을 치렀습니다. 특히 Eukaryal and viral diversity 에 대해 복습하였습니다. 요약본을 보며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여 표시하고 따로 암기했습니다. 원생생물 중 원충은 1학기 때 배운 내용이 많아 이는 1학기 때 프린트를 참고하여 학명을 다시금 복습하였습니다.</p> <p>중간고사 대비를 위해 튜터가 20문제 예상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를 시간을 재서 풀고 채점을 하였습니다. 주로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어 기출문제를 열심히 복습하자고</p>  |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                          |      | 서로 다짐했습니다. 5가지의 전파경로에 따른 미생물을 각각 암기하였고 병원성의 특징에는 감염, 전염, 병원성, 독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배웠습니다.  |
| 11/12 | 20:00 ~ 23:00<br>(2회 진행) | ZOOM | <p>퀴즈를 대비하기 위해 항생제, 항원중제, 항바이러스제를 다시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간고사 끝나고 틀린 문제들은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암기하도록 했다. 감염 경로는 외울게 많아서 색깔 별로 특징지어 공부하며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다. 또한, PPT내용과 기출문제를 함께 합쳐서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p> <p>미생물학2는 매주차 퀴즈를 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퀴즈 암기법을 학습하였다. 특히, 항바이러스는 NRTI와 NNRTI 구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서 학습하였다. 그 이후 면역학을 학습하였는데, 소단원으로 세분화하여 공부해올 소단원을 나누고 각자 학습한 후에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파트를 나눠서 심도있게 공부하고 나니 방대한 양의 면역학을 더 손쉽게 정복할 수 있었다.</p>                          |
| 12/03 | 20:00 ~ 23:00<br>(2회 진행) | ZOOM | <p>미생물학 마지막 파트이자 꽃이라고 볼 수 있는 antimicrobial therapy 파트를 학습했는데, 여기서 약물들의 정균형과 살균형 구분을 테이블로 정리함으로써 더 손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형태를 바꾸어 공부하였다. 또한, 기출 문제를 풀면서 어려운 내용을 토의하면서 함께 공부해갔고, 이로써 어려운 문제도 놓치지 않고 확실하게 공부하며 개념을 응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p> <p>미생물학2에서 가장 중요한 항생제 명칭, 구조, 작용기전(MOA)를 정리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PPT에 등장하는 항균제들을 모두 모아서 MOA에 따라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구조를 암기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특징적인 부분만 캐치하는 연습을 하여 암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마지막에는 조원들과 신개념 항생제가 어떻게 내성 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지 토의하면서 개념을 확장해나갔다.</p> |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1,2회차에서 학습방법을 우리 팀원의 특성에 맞게 잘 수정해서 한 학기 동안 별 문제 없이 소모임을 잘 끝낼 수 있었다. 벼락치기로 암기하는 것을 잘 못 했던 우리 팀이었기에 꾸준히 매 모임마다 시험을 보고 퀴즈를 치루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5회차에서는 감염경로를 외우는 시간을 가졌는데, 혼자서 외우기에는 너무 양이 많았고, 집중력의 한계 때문에 오랜 시간 공부하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서로 문제를 내주고 퀴즈 형식으로 공부하니 더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었고, 더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었다. 이것이 같이 공부하는 것의 힘이라고 생각된다. 6회차에서는 면역학의 소단원이 너무 많아서 혼자서 모든 소단원을 정리하기에는 벅찼는데, 조원들과 분량을 나눠서 맡은 소단원을 심도있게 정리하고 요약하여 학습하니 더 손쉽게 소단원들을 깊이있게 공부할 수 있었다. 각자의 분량을 나누고 맡은 파트를 공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다. 7회차에서는 정균형과 살균형을 테이블로 정리하여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부분도 역할 배분을 하여 진행하였는데, 정균형만 따로 정리하는 역할, 살균형만 따로 정리하는 역할로 나눈 후에 합본하는 형식을 채택하여 효율적인 역할 배분으로 정균형/살균형을 정리한 표를 만들 수 있었다. 8회차에는 antimicrobial drug의 구조를 암기하는게 핵심이었다. 이 역시도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어렵고 오래 집중하기 어려운 파트였다. 하지만, 서로 퀴즈를 내주고, 어떻게 암기하였는지 특징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부하니 더 재밌고 손쉽게 공부할 수 있었다.

전공 교과목 튜터링의 효과로는 방대한 양의 미생물학2를 더 효율적으로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팀원의 미생물학 성적이 1학기 때보다 모두 올라서 각자의 한계를 극복했다고 느껴졌다. 특히 미생물학을 포기할 뻔했던 친구들도 꾸준히 외우다보니 과목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여 오히려 미생물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다음학년에는 바이오의약품을 다같이 공부해보는 것이 어떨까 의견을 나누었다.

▶ 기타 의견

5회차와 8회차의 경우 감염경로와 antimicrobial drugs를 암기할 때 서로 문제를 직접 만들어 출제하고 quizlet등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학습한 점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학습하니 더 신박하기도 하였고, 재밌기도 하였다. 서로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함으로써 자극도 받고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었다.



## 팀명 : 히암슬터즈

- 학과: 상담심리학과
- 튜터: 황\*재
- 튜티: 강\*인, 김\*경, 김\*우, 손\*미, 한\*웅
- 학습과목: 성격심리학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11.27. ~ 2021.12.15.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11/27 | 22:00 ~ 24:00 | ZOO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주제: 성격유형과 성격특질, 성격을 구성하는 동기와 정서, 성격을 구성하는 인지와 행동</li> <li>■ 학습 목표: 성격의 유형과 특질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내면적 동기의 속성과 성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지적 요인에 대해 이해하는 것</li> <li>■ 학습 내용: 성격의 유형론 및 성격의 특질이론 &gt; 성격의 5요인 이론 &gt; 기질 및 성품의 심리생물학적 이론 &gt; 성격을 구성하는 요인들(동기, 정서, 인지, 행동)</li> <li>■ 진행 방식: *SQ3R(survey question read recite review) 학습방법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진행 과정은 전체적인 내용 가볍게 살펴보기 &gt; 알게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 만들기 &gt; 함께 질문에 대한 답 찾기 &gt; 질문에 대한 답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기 &gt; 학습한 내용과 실제 생활 속의 예를 관련지어 복습하기 단계로 학습을 진행했다.</li> <li>■ 학습 효과: SQ3R 방법을 통해 학습을 진행한 결과, 전반적인 학습 내용을 파악하기 수월했고, 함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다. 또한, 실제 생활 속의 예를 관련지어 학습함으로써 내용이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li> <li>■ 교재 및 참고자료: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 PPT 자료</li> </ul> |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               |      | *SQ3R: 읽기기술을 향상시키는 훈련방법으로, 개관하기 > 질문하기 > 읽기 > 암송하기 > 복습하기 다섯 단계로 이루어진 방법  |
| 12/13 | 22:00 ~ 24:00 | ZOO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주제: 성격장애와 성격강점, 성격의 결정요인, 성격 발달과 심리사회적 요인</li> <li>■ 학습 목표: 성격강점의 의미와 성격장애의 정의 및 진단 기준을 알아보고, 성격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과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을 이해하는 것</li> <li>■ 학습 내용: 성격장애 - 부적응적인 성격특성 &gt; 성격강점 - 긍정적인 성격특성 &gt; 성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진화, 유전, 문화) &gt;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gt; 청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li> <li>■ 진행 방식: 이전 회차와 마찬가지로 SQ3R 학습방법을 통해 진행했다. 하지만 이전 회차에서는 '질문 만들기' 단계에서 겹치는 질문이 있어 많은 내용을 학습하진 못했기에, 이번 회차에서는 질문이 겹치지 않도록 각자 파트를 정해 자신이 맡은 부분 내에서 질문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li> <li>■ 학습 효과: 각자 파트를 정하여 질문을 만듦으로써 다양한 질문이 나왔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li> <li>■ 교재 및 참고자료: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 PPT 자료</li> </ul> |
| 12/14 | 22:00 ~ 24:00 | ZOO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주제: 정신분석이론, 분석심리학 및 개인심리학 이론</li> <li>■ 학습 목표: 정신분석이론, 분석심리학, 개인심리학의 기본가정을 학습하고, 각 이론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li> <li>■ 학습 내용: 정신분석이론의 기본가정 및 성격의 구조 &gt; 성격의 발달 및 방어기제 &gt; 정신분석 치료 &gt; 분석심리학과 개인심리학의 기본가정 및 성격의 구조 &gt; 각 이론에 따른 정신병리의 이해와 치료</li> <li>■ 진행 방식: 정신분석이론과 분석심리학, 개인심리학 이론은 1학기 때 어느 정도 배운 내용이므로 SQ3R 학습방법이 아닌 심층 탐구 학습전략을 통해 내용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함. 진행 과정은 각자 이번 차시에</li> </ul>  |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               |      | <p>공부할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공유하여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효과: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학습한 결과, 공부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나중에 실제 상담사가 되어 치료를 진행할 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li> <li>■ 교재 및 참고자료: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 PPT 자료</li> </ul>  |
| 12/15 | 22:00 ~ 24:00 | ZOOM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주제: 행동주의 및 인지주의 이론, 인본주의 및 실존주의 이론</li> <li>■ 학습 목표: 행동주의, 인지주의, 인본주의, 실존주의 이론의 기본가정과 특징을 학습하고, 각 이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li> <li>■ 학습 내용: 고전적·조작적 조건형성 &gt; 사회적 학습이론 &gt; Kelly의 개인적 구성개념 이론 &gt; Ellis의 합리적 정서행동 이론 &gt; Beck의 인지이론 &gt; Maslow의 인본주의 이론 &gt; Rogers의 인간중심이론 &gt; 실존주의 이론</li> <li>■ 진행 방식: 심층 탐구 방법으로만 학습을 진행하기에는 분량이 많아서 제대로 된 학습을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1,2회차에서 사용했던 SQ3R 학습전략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함과 동시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방식으로 두 학습방법을 결합하여 학습을 진행하였다.</li> <li>■ 학습 효과: SQ3R 학습방법과 심층 탐구 학습방법을 결합하여 학습을 진행한 결과, 전반적인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 같다.</li> <li>■ 교재 및 참고자료: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심리학, 성격심리학 PPT 자료</li> </ul> |

## ○ 활동 소감

### ▶튜터 황\*재

이번에 전공 튜터링 소모임의 튜터 역할을 맡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아직 대학에 들어온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전공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는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기에 튜터 역할이 조금은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다른 친구들에게 학업적으로 도움을 주고,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큰 고민 없이 튜터 역할을 자처했고, 팀원들이 잘 따라와 주고 참여해준 덕분에 무사히 전공 튜터링 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시작한 소모임이었지만, 활동을 하면 할수록 나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무엇보다도 함께 공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정보, 혹은 모르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다. 또한, 이번 소모임을 통해 여러 가지 학습법을 시도하면서 앞으로 학업을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조금은 감을 잡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러웠다. 특히 SQ3R 학습전략과 심층 탐구 학습전략을 통해 공부하고, 더 나아가 마지막에 이 두 학습전략을 결합하여 새로운 학습전략을 개발해 학습에 적용했던 것이 나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다. 이번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의 변화도 많았다. 이전에는 항상 공부하는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처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소모임 팀원들의 소중함을 느꼈던 것 같다. 학업적인 부분 외에도 원래 알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서로의 새로운 면을 보면서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것 같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또한, 팀원들이 한 번도 싫은 티 안 내고 잘 따라와 주고, 어떠한 부탁도 흔쾌히 들어준 덕분에 스스로도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다.

비록 총 8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튜터링을 준비하는 과정,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번 튜터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부드럽게 소모임을 이끌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튜터: 강\*인

코로나 19로 바깥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친구들과 비대면으로 화상 소모임을 진행하니 삶에 활력이 생긴 것 같다. 익숙한 친구들과 함께 평소에는 다루기 힘든, 익숙하지 않은 전공 관련 주제들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는 시간을 가지며 우정이 더욱 돈독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 또한, 처음에는 회의를 화상으로 할 경우 집중도 저하 문제가 우려되었는데, 오히려 화상 회의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모두 자신이 편안한 장소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서 회의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어떤 친구의 음성이 자주 끊긴 적이 있는데, 이처럼 비대면 화상 회의는 네트워크 연결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전공 튜터링에 해당하지 않는 과목을 공부할 때는 혼자 시험 범위 해당 내용만을 곁핥기 식으로 이해하면서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했다면, 전공 튜터링 해당 과목은 해당 범위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 열정적인 친구들과 같이 전공 튜터링 소모임을 하니, 서로에게 자극을 주어서 더욱 열심히 활동에 임할 수 있었고 동시에 다방면에서 성장해나갈 수 있어서 아주 만족스러웠다.

▶튜터: 김\*경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친구들에게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어서 좋았다. 혼자 하면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나중에 찾아야지, 교수님께 질문드려야지 하고 넘긴 후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 소모임을 하면서 궁금한 점을 즉시 묻고 해결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 전공 튜터링을 통해 열심히 공부하니 기말에 좋은 성적을 얻었고, 오픈북 시험이라 긴장감 없이 공부를 미루고 느슨하게 해 실수를 많이 범할 수 있었는데 전공 튜터링이 이 부분을 막아준 것 같아서 좋았다. 이번 소모임은 약속 시간을 크게 어기는 친구도 없었고 놀거나 떠들려는 친구 없이 다들 진지하게 임해준 덕분에 공부 분위기가 잘 흘러가서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모임을 비대면 줌으로 진행한 탓에 집이 너무 시끄러워서 마이크를 계속 중간중간 끄거나 캠을 신경 써야 할 때가 많아서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튜터: 김\*우

소모임을 함으로써 다른 학생들의 주요 학습법을 참고하면서 좋은 학습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고, 서로에게 부족한 점들을 각각 보완해주면서 이끌어갈 수 있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대면 줌을 통해서만 만나서 학습을 해야 했다는 점이 아쉬웠다. 더 시국이 나아지면서 직접 대면으로 만나서 학습을 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튜터: 손\*미

소모임을 처음 해보았는데 함께 하는 공부가 기억에 훨씬 많이,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공부라 처음부터 끝까지 재미있었고 매번 흥미를 느끼며 소모임을 할 수 있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코로나로 비대면 모임만 가능했다는 것이다. 물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함께 모여 소모임을 진행했다면 더 흥미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공 튜터링을 통해 내가 궁금했던 질문을 포함한 친구들의 다양한 질문 및 의견을 들을 수 있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 개인적으로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데, 소모임으로 정해진 시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던 점이 다른 공부에도 가장 도움이 되었던 좋은 습관이 된 것 같다.

▶튜터: 한\*웅

소모임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줌으로 자신이 공부한 것을 나누고 알려주는 부분에서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에게 내용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 좋았고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다시금 내용을 알려주면

서 자신이 배웠던 것을 복습하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던 것 같다. 전반적으로 회기를 진행하면서 더 끈끈한 사이가 되어서 매우 좋았고,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워낙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과 소모임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상대로 엄청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렵기만 했던 전공 내용을 친구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학습적인 내용도 분명한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하지만, 그보다 친구들과끼리 같이 공부하면서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더 친밀해진 것 같아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줌으로 만나서 약간의 딜레이가 있었던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다.

▶기타 의견

우리 소모임의 특징은 팀원들과의 친밀감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소모임을 진행하기 전부터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고, 함께 여행도 다녀올 정도로 가깝게 지낸 사이다. 그래서 오히려 소모임을 진행한다면 '서로 장난만 치지 않을까?' '과연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모두가 소모임을 진행할 때만큼은 진지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덕분에 계획했던 대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 모두가 친한 관계인 만큼,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뭔가 아니다 싶은 부분은 망설임 없이 지적 해주고, 지적 받더라도 감정이 상하지 않고 쿨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 우리 소모임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전공 튜터링 활동을 진행하면서 얻은 정보와 내용들은 나중에 다시 소모임을 진행하거나 혼자서 공부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2021 학년도 2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 IV. 리딩 리더스

- 리딩 리더스 완료 명단
- 리딩 리더스 우수팀 활동 사례
  1. 책먹는 하마들
  2. 책책마이크책





## ○ 리딩 리더스 완료 명단

| 팀명              | 팀원  | 학과      |
|-----------------|-----|---------|
| 책먹는 하마들<br>(우수) | 김*정 | 약학과     |
|                 | 김*정 | 약학과     |
|                 | 김*안 | 약학과     |
|                 | 김*보 | 약학과     |
|                 | 유*리 | 약학과     |
|                 | 정*희 | 약학과     |
| 책책마이크책<br>(우수)  | 기*윤 | 약학과     |
|                 | 장*린 | 약학과     |
|                 | 최*현 | 약학과     |
| 고독한 김씨들         | 김*림 | 시보건의료학부 |
|                 | 김*린 | 시보건의료학부 |
| 송우리 교양이들        | 이*우 | 약학과     |
|                 | 김*솔 | 약학과     |
|                 | 김*영 | 약학과     |
|                 | 신*철 | 약학과     |
|                 | 원*웅 | 약학과     |
|                 | 이*연 | 약학과     |
|                 | 이*연 | 약학과     |
|                 | 조*정 | 약학과     |
| 북스라이프           | 김*정 | 약학과     |
|                 | 박*현 | 약학과     |
|                 | 박*희 | 약학과     |
|                 | 서*연 | 약학과     |
|                 | 장*영 | 약학과     |
| 책 끝을 접다         | 오*정 | 약학과     |
|                 | 홍*택 | 약학과     |
|                 | 고*영 | 약학과     |
|                 | 김*주 | 약학과     |
|                 | 이*혜 | 약학과     |
|                 | 정*경 | 약학과     |
|                 | 최*웅 | 약학과     |
| 리딩으로 리드하자       | 유*위 | 약학과     |
| 책!책!책을 읽읍시다     | 이*지 | 약학과     |
|                 | 이*원 | 약학과     |
| 책 읽는 동물원        | 이*연 | 약학과     |
|                 | 임*정 | 약학과     |
|                 | 정*지 | 약학과     |
|                 | 채*은 | 약학과     |
| 탕평책             | 김*미 | 약학과     |
|                 | 박*연 | 약학과     |
|                 | 윤*연 | 약학과     |
|                 | 이*주 | 약학과     |
|                 | 최*희 | 약학과     |

## ○ 리딩 리더스 우수팀 활동 사례

### 팀명 : 책먹는 하마들

- 학과: 약학과
- 팀원: 김\*정, 김\*정, 김\*안, 김\*본, 유\*리, 정\*희
- 학습내용: 독서 감상 및 토론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09.19. ~ 2021.11.29.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09/19 | 19:00 ~ 21:00 | ZOOM | 달려구트 꿈 백화점에 대한 독서 감상 및 토론 |
| 10/24 | 20:00 ~ 22:00 | ZOOM | 연금술사에 대한 독서 감상 및 토론       |
| 11/29 | 20:00 ~ 22:00 | ZOOM | 어린왕자에 대한 독서 감상 및 토론       |

###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총 세 권 (달려구트 꿈 백화점, 연금술사, 어린왕자)의 책을 기간을 정해 각자 읽고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감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각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한 토론 주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바쁜 학업 일정 속에서도 책을 읽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획한 리딩리더스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혼자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독서를 함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어도 학업에 지쳐 읽지 않게 되고 실패한 적이 많았는데 스터디 조원들과 기한을 정해 약속을 하니 책을 읽자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점이 많았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온 만큼 생각하는 바도 매우 달랐고 같은 내용의 책을 읽고도 느낀 점이 이토록 다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끝나는 그 이상의 가치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스터디였습니다.

달려구트 꿈 백화점을 읽고 꿈에 대해 토의하며 각자가 최근 꿰던 꿈과 꾸고 싶은 꿈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꿈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토의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처럼 가볍지만 흥미진진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토의였습니다.

두 번째 책인 연금술사는 책을 읽고 ‘자아의 신화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가장 많이 공감을 얻은 의견은 자아의 신화란 단순히 꿈의 성취 그 자체가 아닌 꿈에 대한 마음가짐이라 것이었습니다. 꿈에 대한 마음가짐이란 꿈을 포기하거나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좀 더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꿈에 대한 순수한 마음과 용기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왕자를 어렸을 때 읽어보지 않은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으나 그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는 친구 또한 한 명도 없었습니다. 스터디 조원 모두 어렸을 때는 단순히 유명한 글귀와 그림에 집중하여 읽었던 책인데, 다시 읽으니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들이 훨씬 크게 다가왔다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왕자 책을 통해 각자의 마음 속에 어린 왕자의 순수함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에도 감탄하고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하늘, 꽃, 나무들을 한껏 누리자고 말하였습니다.

총 세 권의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진행하니 우리가 선정한 책이 공통적으로 꿈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했습니다. 이번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20대 초중반의 스터디 조원 각자가 자신의 꿈에 대해 다시금 깊이 고민하고 꿈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팀명 : 책책마이크북

- 학과: 약학과
- 팀원: 기\*윤, 장\*린, 최\*현
- 학습내용: 독서 감상 및 토론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10.01. ~ 2021.11.27.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10/01 | 10:00 ~ 18:00 | ZOOM | 배명훈의 소설 '안녕, 인공지능!'을 읽고 크레인에서 가치 추구란 무엇인지, 인식론적 관점에서 인공 존재는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는지 토론하였다. 각 단편 소설마다 어떠한 관점으로 책을 감상하였는지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 11/19 | 19:30 ~ 21:30 | ZOOM | '타이탄의 도구들'을 통해 보편적인 성공을 위한 공통적인 행동과 사고방식을 배우고, 더 나아가 타이탄들의 특징적인 행동 및 사고방식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또한 책에 등장한 여러 사례와 습관들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는 뒤, 실천을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다.               |
| 11/27 | 10:00 ~ 18:00 | ZOOM | 유발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의 책을 읽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우리가 갖추어야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능동적 사고로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결정권'을 가진 우리들과 AI의 차이점을 논의해보았고, 범람하는 데이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명한 자세를 생각하였다. |

## ○ 활동 소감

## ▶ 종합 의견

바쁜 학기 중에 책을 완독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조원들과 함께 하니 훨씬 도움이 되었다. 특히나 유발하라리의 도서는 깊은 생각과 이해를 요구하여 끈기가 필요한 책이라, 완독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지만 조원들과 함께 스케줄을 정하여 서로의 독서상황을 체크해나가니, 결과적으로 모든 챕터를 온전히 이해하며 읽어나갈 수 있었다. 또한 책을 읽더라도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장르를 편식하곤 했는데, 조원들 각자 원하는 책을 하나씩 정하여 3권을 읽으니, 소설(문학), 자기개발서, 비문학 각각의 분야를 읽어나갈 수 있어서 이번 리딩리더스의 활동은 모두에게 의미있게 다가왔다. 졸업 후 '약사'라는 같은 직업을 가질 동기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니,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사고방식, 대처방안에 대하여 공통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었다. 방학 기간에도 꾸준히 책을 읽고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기약하며 이번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책을 가까이 하니 생각이 깊어지고, 사고와 논리도 다듬어지는 시간이었다.

## ▶ 기\*유

동기들과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깊은 이야기를 나누며 나의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개인적으로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동기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더욱 객관적으로 알아갈 수 있었다. 하나의 주제에도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있다는 점과, 하나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통된 해결책을 위하여 머리를 맞대어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독서 후 토론하는 시간을 넘어서 동기들과 함께한 리딩리더스이다 보니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농담도 주고받으며 더욱 즐겁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 자신의 생각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상대의 생각은 포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사고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친구들마다 시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책을 읽으며 당연하듯 넘어간 내용이나 글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며 책의 내용을 다시금 정리해볼 수 있었다. 이어서 토론에 대한 생각을 글로 정리하여 서술하는 과정에서 나의 의견과 가치관을 확고히 다져볼 수 있었다. 리딩리더스는 혼자서 책을 100번 읽어도 경험할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감히 말할 만큼 유연한 사고와 포용력을 기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다.

## ▶ 장\*린

동기들과 함께 처음으로 리딩 리더스 소모임을 진행하며, 책을 통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삶에 적용하면서 더욱 발전하는 우리들을 그릴 수 있었다. 평소 독서를 거의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소모임을 통해 억지로라도 천천히 책을 읽어나갈 수 있었고, 이것이 작은 습관이 되어 어느새 책장을 넘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혼자서 읽는 것보다 소모임을 통해 계획적으로 함께 독서를 진행하는 것을 통해 더 많은 양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같은 책이라도 서로 읽고 느낀 감상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동기들의 폭넓은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생각의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 평소 갖고 있던 각자의 생각과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며, 전보다 동기들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어 이 시간들이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뜻깊었다. 독서모임이기에 자칫하면 너무 정적이고 재미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지만, 매시간 기상천외하고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을 꺼내는 동기들 덕분에 많이 웃고 떠들 수 있었던 유쾌한 시간들이었다. 이 소모임이 단순히 좋은 추억으로만 남지 않고, 3권의 책에서 우리가 배우고 적용한 내용들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스스로의 시야를 넓히고 더 다양한 일에 도전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

#### ▶최\*현

우리들은 '안녕,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에서 책을 살펴 볼 수 있었고, '타이탄의 도구들'을 통해 미래를 그릴 수 있었으며,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통해 끊임없는 상상력의 나라를 펼칠 수 있었다. 3가지 모두 다른 주제를 다룬 만큼 이야기할 소재도 무척 다양하였다. 책 읽기란 혼자서 교양을 쌓는 행위라는 나의 고정관념은 리딩리더스를 통해서 180도 뒤바뀌게 되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옥시토신을 분비하게 된다.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행복한 감정을 느꼈고, 자연스럽게 책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리딩리더스는 단순한 독서 감상문 작성에 그치지 않는다. 나는 활동을 통해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재미있는 글쓰기를 수행할 수 있었으며 책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나눌 수 있었다. 또한 '미라클 모닝'은 아침에 간단한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미라클 모닝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어느덧 3가지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 다른 공부도 아침에 조금씩 하게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나의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심어준 리딩리더스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

#### ▶기타 의견

책을 읽은 후의 독후감이 아닌 서평까지 쓰면 어떨지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그만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책 감상이 색다르게 다가왔고, 소위 '인생 도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개개인 모두 책을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다르고 그 글귀를 뽑은 이유도 제각각인 점이 신기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읽은 책에 대한 나만의 글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2021 학년도 2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 V. **영어 클럽**

- **영어 클럽 완료 명단**
- **영어 클럽 우수팀 활동 사례**
  1. 구공즈 뮤비클럽
  2. 사랑마을 차차차





## ○ 영글 클럽 완료 명단

| 팀명               | 팀원  | 학과       |
|------------------|-----|----------|
| 구공즈 뮤비클럽<br>(우수) | 김*린 | SI보건의료학부 |
|                  | 김*림 | SI보건의료학부 |
| 사랑마을 차차차<br>(우수) | 권*현 | 약학과      |
|                  | 김*경 | 약학과      |
|                  | 민*기 | 약학과      |
|                  | 박*  | 약학과      |
|                  | 이*지 | 약학과      |
|                  | 한*훈 | 약학과      |
| 영화는 영화다          | 김*솔 | 약학과      |
|                  | 조*정 | 약학과      |
| 영화가 좋다           | 박*희 | 약학과      |
|                  | 김*정 | 약학과      |
|                  | 박*현 | 약학과      |
|                  | 서*연 | 약학과      |
|                  | 장*영 | 약학과      |
| 눈누난나영화           | 기*윤 | 약학과      |
|                  | 장*린 | 약학과      |
|                  | 최*현 | 약학과      |
| 왓차(WATCHA)       | 곽*구 | 약학과      |
|                  | 김*온 | 약학과      |
|                  | 강*기 | 약학과      |
|                  | 김*안 | 약학과      |
|                  | 남*원 | 약학과      |
|                  | 박*욱 | 약학과      |
|                  | 최*우 | 약학과      |
|                  | 황*  | 약학과      |
| 약영(약학과 영글클럽)     | 김*경 | 약학과      |
|                  | 김*희 | 약학과      |
|                  | 김*희 | 약학과      |
|                  | 김*연 | 약학과      |
|                  | 이*민 | 약학과      |

| 팀명         | 팀원  | 학과  |
|------------|-----|-----|
| 차대의 빛      | 김*미 | 약학과 |
|            | 박*연 | 약학과 |
|            | 윤*연 | 약학과 |
|            | 이*주 | 약학과 |
|            | 최*희 | 약학과 |
| 무비인더룸      | 김*연 | 약학과 |
|            | 김*정 | 약학과 |
|            | 김*희 | 약학과 |
|            | 정*지 | 약학과 |
| 영화는 나의 동반자 | 유*위 | 약학과 |
| 슬기로운 영글생활  | 고*영 | 약학과 |
|            | 김*주 | 약학과 |
|            | 오*정 | 약학과 |
|            | 이*혜 | 약학과 |
|            | 정*경 | 약학과 |
|            | 최*웅 | 약학과 |
|            | 홍*택 | 약학과 |

## ○ **영글 클럽 우수팀 활동 사례**

### **팀명 : 구공즈 무비클럽**

- 학부: 시보건의료학부
- 팀원: 김\*림, 김\*린
- 학습내용: 영화 감상 및 토론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10.29. ~ 2021.11.26.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10/29 | 20:00 ~ 23:00 | ZOOM | <p>1. 활동 내용</p> <p>영화 &lt;시카고&gt;를 함께 감상하고 화려한 뮤지컬 연출 뒤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주인공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합리화 시도, 사회 언론의 이중성 등의 풍자 요소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영화의 배경이 된 1900년대 초반, 당시 시대를 분석해보면서 비판적 시선으로 영화의 내용을 살펴본다.</p> <p>2. 이번 모임의 성과</p> <p>영화 속 두 주인공 록시와 벨마의 '어쩔 수 없었던, 마땅한 각자만의 사정'이 있다는 살인 행위에 대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도, 정의로운 것도 아닌 자극적이고 흥미로움을 좇는 시카고 언론 그리고 그 언론의 기사를 그대로 믿는 시카고 사회를 확인할 수 있었다.</p> |
| 11/12 | 20:00 ~ 23:00 | ZOOM | <p>1. 활동 내용</p> <p>영화 &lt;크랙&gt;을 감상하고, 외부인이 완전히 차단된 고립된 공간에서의 집단적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지, 또 그 집단에서 우위를 차지한 자의 실체는 어떠한지, 집단 안에서 이뤄지는 작지만 강력한 세</p>   |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               |      | <p>뇌들까지, 외부인의 개입으로 그 집단이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된다.</p> <p>2. 이번 모임의 성과<br/>영화 &lt;시카고&gt;에 이어, 깨어지는 그들만의 엄격한 규칙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다. 영화 &lt;시카고&gt;에서는 모두가 지켜보고 언론이 통제하는 스타들의 이야기인 반면, &lt;크랙&gt;은 외부인은 아무도 알 수 없고 절대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당사자가 아니라면 모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순수한 진실에 대해 토론해볼 수 있었다.</p>   |
| 11/26 | 20:00 ~ 23:00 | ZOOM | <p>1. 활동 내용<br/>영화 &lt;리플리&gt;를 감상하면서, 주인공 리플리를 통해 '리플리 증후군(현실이 아닌 허구의 가상 세계를 진실이라 믿고 거짓 행위를 하는 성격장애)'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멈출 수 없는 거짓말의 연속성과 그 거짓이 끝내 가져오는 절망의 파급력에 대해 토론하며 '거짓'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p> <p>2. 이번 모임의 성과<br/>영화 &lt;시카고&gt;, 영화 &lt;크랙&gt;에서 진실을 비추는 거짓된 언론, 그리고 독립된 공간에서의 순수한 진실, 1·2회차에서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을 바라봤다면, 영화 &lt;리플리&gt;에서는 사실이 되어버린 '거짓'을 볼 수 있었다. 진실을 물어버리기 위해 어떤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주인공을 살펴봄과 마지막 3회차 활동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었다.</p> |

○ 활동 소감

▶ 종합 의견

세 편의 영화를 이어보면서 우리는 과연 내가 아는 진실과 거짓에 대하여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일까 의문을 갖게 되었고 끊임없이 그 사실을 의심해 갔다.

첫 번째 영화 <시카고>에서는 범죄행위에 대한 합리화가 단순히 언론의 힘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걸 느꼈다. 화려하고 자극적이고, 관객들이 절대 지루하지 않게 노래가 계속 흐르는 이 영화 처럼 진실은 자꾸만 우리의 눈에서 숨겨지고, 더 관심 가질만한, 더 즐거워 보이는 것을 내세우는

것. 그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또 그랬기 때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쉬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영화 <크랙>에서는 <시카고>와 달리 철학적인 의미를 많이 담은 영화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해석이나 영화에 대한 별도의 정보 없이 느낀 바를 그대로 이야기 나눌 수 있기를 노력했다. 우리의 의견이 거짓되지 않기를 바랐던 거라 말할 수 있다.

세 번째 영화 <리플리>에서는 의도치 않게 또는 의도해서 거짓을 사실로 만들게 된 상황에 대해, 살면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어땠을까와 같은 여러 가정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생각들을 적용해볼 수 있었다.

이렇게 이번 소모임 활동은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선택한 세 편의 영화가 묘하게 이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았고, 이런 다양한 상황 속 개인과 집단에게 어떤 것이 과연 정당한 행동이었을지, 세 편의 영화를 함께 봄으로써 영화를 감상하고 주제를 해석하는 다양한 시각을,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

## 팀명 : 사랑마을 차차차

- 학과: 약학과
- 팀원: 권\*현, 김\*경, 민\*기, 박\*, 이\*지, 한\*훈
- 학습내용: 영화 감상 및 토론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09.19. ~ 2021.10.03.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09/19 | 20:00 ~ 23:00 | ZOOM | 뷰티인사이드는 매일 매일 신체, 인종, 성별이 달라지는 한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매일 다르다면 과연 그 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 '외적인 모습이 아닌 내적인 모습만을 보며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
| 09/26 | 20:00 ~ 23:00 | ZOOM | 라라랜드는 사랑과 꿈을 소재로 한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로 너무나 사랑하지만 각자의 꿈에 대한 열망과 현실의 벽 앞에서 결국 이별하게 됩니다. 이를 보며 현실과 꿈, 또는 꿈과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지 친구들과 함께 토론하고,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
| 10/03 | 18:00 ~ 21:00 | ZOOM | 패신저스는 먼 미래에 다른 행성으로의 이주하는 도중, 동면상태에 있던 남자가 기기의 고장으로 90년이나 일찍 혼자 깨어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결국 좋아하는 여자를 깨워 여자도 평생 우주선에서 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외롭다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외로움의 행군에 강제로 동참시키는 남자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주라는 공간에서의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자신의 외로움과 상대방을 위한 배려의 충돌로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

## ○ 활동 소감

### ▶ 종합 의견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갔고 서로의 생각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각한다. 같이 영화관에서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코로나로 인해 만나지 못하고 줌으로 같이 봐야해서 아쉬웠다. 그렇다보니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줌이 끊기는 등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영화의 전체적인 주제가 '사랑'이었는데 영화 세 편을 다 보면서 6명이 각자 생각하는 부분과 인상깊은 부분이 다 달라 신기했다.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지만 우리 모두 다 진정한 사랑이란게 무엇일지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다.

### ▶ 기타 의견

각자 집에서 편하게 영화를 보았습니다. 줌이라 현장감이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영화도 있어서 재밌게 시청하였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에 대해 같이 이야기하지 못해 아쉬울 때도 있었는데 영화를 보고나서 친구들과 쉽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었습니다.





2021 학년도 2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 VI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1. A 뿌려조
  2. 프로이트 팬카페



##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 팀명       | 팀원  | 학과     |
|----------|-----|--------|
| A 부려조    | 이*연 | 상담심리학과 |
|          | 최*원 | 상담심리학과 |
|          | 송*인 | 상담심리학과 |
| 프로이트 팬카페 | 권*빈 | 미술치료학과 |
|          | 이*현 | 미술치료학과 |

## ○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 팀명 : A부러조

- 학과: 상담심리학과
- 지도교수: 김\*연
- 팀원: 송\*인, 이\*연, 최\*원
- 학습과목: 이상심리학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12.04. ~ 2021.12.16.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12/04 | 16:00 ~ 18:00 | ZOOM | 불안 장애의 임상적 증상과 원인 및 치료방법을 학습함. 특히 범불안장애, 특정 공포증, 광장 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무연증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습함. |
| 12/12 | 16:00 ~ 18:00 | ZOOM | 성격장애의 정의와 진단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DSM-5의 성격장애 분류체계와 하위유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습함.                                      |
| 12/14 | 16:00 ~ 18:00 | ZOOM | 신체증상 및 관련장애의 정의와 진단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DSM-5의 분류체계와 하위유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습함.                                    |
| 12/16 | 16:00 ~ 18:00 | ZOOM | 물질관련 및 중독장애의 정의와 진단기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DSM-5의 분류체계와 하위유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학습함.                                    |

## ○ 활동 소감

### ▶ 송\*인

복습차원에서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전공 공부를 하게 되어 좋은 영향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끝난 뒤에도 복습을 하여 기억에 더 오래, 더 확실히 남아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더욱 좋은 공부법으로 느껴졌습니다. 보통 시험이 끝나고 공부한 지식들을 다 잊어버리기 마련인데 다시 학습해보면서 이상 장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나중에 이상 장애를 가진 환자를 마주하면 더 잘 수행하고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맞는 친구들과 소모임을 진행하면서 다들 각자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느껴졌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학습법 소모임 진행 과정 중에 서로 헛갈리는 부분은 다 같이 토의를 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해나갔기에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학습법 소모임을 마치게 되어 너무 아쉬웠지만, 그만큼 소모임을 하는 시간 내내 재미있었고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 ▶ 최\*원

여러 이상 장애의 하위 유형이 조금 많아서 헛갈렸는데,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서 어려웠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수업 내용 중의 중요한 부분을 골라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제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시험이 끝난 뒤에 줌으로 만나서 공부하는 것이 학습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복습을 하면서 이상 장애에 대한 지식을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었고, 더 이상 책이나 프린트를 보지 않아도 이상 장애에 대해 자신있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책을 바로 덮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 진심으로 부듯했습니다. 마지막 소모임을 진행하고 학습법 소모임을 총 마무리할 때에는 이상 장애에 대한 진단기준과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것 뿐만 아니라 나만의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서 이번 소모임은 제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이\*연

이상 장애에 대해 평소에 관심이 많았어서 전공 수업을 듣고 나면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점을 학습법 소모임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토의할 수 있어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었고 제 지식 또한 한층 더 깊어진 듯한 느낌이 단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공 시험을 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임상 및 상담심리사가 되기 위해 자격증 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고, 또, 꿈을 이루고 나면 환자들을 만나고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법소모임을 통한 복습이 앞으로의 진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한꺼번에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서 시험이 끝나면 금방 지식을 까먹고는 했었는데,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올바른 공부 패턴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제 자신에게 부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 팀명 : 프로이트 팬카페

- 학과: 미술치료학과
- 지도교수: 신\*승
- 팀원: 권\*빈, 이\*현
- 학습주제: 정신분석 강의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10.30. ~ 2021.11.30.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10/30 | 09:00 ~ 11:00 | ZOOM | 무의식과 의식 그리고 승화            |
| 11/10 | 15:00 ~ 17:00 | ZOOM | 무의식적인 행위의 예               |
| 11/15 | 10:00 ~ 12:00 | ZOOM | 행위는 무의식에 근거하는가?           |
| 11/30 | 09:00 ~ 11:00 | ZOOM | 실생활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적용하며 느낀 점 |

### ○ 활동 소감

#### ▶ 권\*빈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을 하면서 프로이트의 이론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었다. 수업 중 에서 프로이트에 대해 조금 배워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았는데 이렇게 따로 프로이트에 이론에 대해서 책을 통해 알아보니 프로이트의 이론이 잘 이해가 되었다.

또한 실생활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실생활과 연결 지어 더욱 프로이트의 이론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교수님과 함께 스터디를 하니 책에 나오지 않는 모르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다.

#### ▶ 이\*현

이번 교수 학습 활동 모임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프로이트 정신분석강의는 버겁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책이다. 하지만 이를 혼자 읽는 것이 아닌, 친구와 서로 해석한 내용을 공유하고 또 공유했던 부분을 정리해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번의 학습을 통해 재미있게 읽어 나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친구와 교수님과 함께하는 학습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책의 내용 또한 다양하게 분석해가며 이해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 교수 학습 활동은 배움 뿐 아닌 추억도 함께 쌓을 수 있어 더욱 의미있었던 경험이었다. 앞으로 남은 학기 동안도 이 모임을 통해 다양한 책을 읽으며 배우고 싶다.

2021 학년도 2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 VII.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완료 명단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우수팀 활동 사례
  1. 뿌꾸뿌꾸
  2. 슬기로운 컴활생활
  3. 공 CHA
  4. 소라
  5. 지역사회간호, 간호행정 마스터





##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완료 명단

| 팀명                    | 팀원  | 학과        |
|-----------------------|-----|-----------|
| 뿌꾸뿌꾸<br>(우수)          | 오*림 | 시보건의료학부   |
|                       | 정*희 | 시보건의료학부   |
|                       | 정*수 | 시보건의료학부   |
|                       | 신*리 | 시보건의료학부   |
| 슬기로운 컴활생활<br>(우수)     | 박*정 | 의생명과학과    |
|                       | 최*희 | 의생명과학과    |
| 공 CHA<br>(우수)         | 신*경 | 의료홍보미디어학과 |
|                       | 이*렬 | 의료홍보미디어학과 |
| 소라<br>(우수)            | 이*림 | 의료홍보미디어학과 |
|                       | 이*서 | 미술치료학과    |
| 지역사회간호, 간호행정 마스터 (우수) | 김*우 | 간호학과      |
|                       | 이*훈 | 간호학과      |
| 아이디어뱅크                | 유*위 | 약학과       |
|                       | 안*민 | 약학과       |
| 아이(AI)면접              | 권*현 | 약학과       |
|                       | 김*경 | 약학과       |
|                       | 민*기 | 약학과       |
|                       | 박*  | 약학과       |
|                       | 이*지 | 약학과       |
|                       | 한*훈 | 약학과       |
| 정이최고                  | 이*혜 | 약학과       |
|                       | 고*영 | 약학과       |
|                       | 김*주 | 약학과       |
|                       | 정*경 | 약학과       |
|                       | 최*웅 | 약학과       |
| 샘솟는기쁨                 | 박*연 | 약학과       |
|                       | 김*미 | 약학과       |
|                       | 윤*연 | 약학과       |
|                       | 이*주 | 약학과       |
| 에코한에코백                | 최*희 | 약학과       |
|                       | 장*영 | 약학과       |
|                       | 김*정 | 약학과       |
|                       | 박*현 | 약학과       |

| 팀명       | 팀원  | 학과        |
|----------|-----|-----------|
|          | 박*희 | 약학과       |
|          | 서*연 | 약학과       |
| 약물척척박사   | 이*민 | 약학과       |
|          | 김*경 | 약학과       |
|          | 김*희 | 약학과       |
|          | 김*희 | 약학과       |
|          | 김*연 | 약학과       |
| 주홍글씨     | 홍*식 | 데이터경영학과   |
|          | 주*은 | 식품생명공학과   |
| 다함께 차차차  | 남*준 | 바이오공학과    |
|          | 이*진 | 의료홍보미디어학과 |
| 금요일에만나요  | 윤*연 | 약학과       |
|          | 김*미 | 약학과       |
|          | 박*연 | 약학과       |
|          | 이*주 | 약학과       |
|          | 최*희 | 약학과       |
| 팀명추천고우   | 안*민 | 약학과       |
|          | 유*위 | 약학과       |
| 컴퓨터사랑동물원 | 이*연 | 약학과       |
|          | 이*영 | 약학과       |
|          | 임*정 | 약학과       |
|          | 정*지 | 약학과       |
|          | 채*은 | 약학과       |
| 워드유티스    | 한*훈 | 약학과       |
|          | 권*현 | 약학과       |
|          | 김*경 | 약학과       |
|          | 민*기 | 약학과       |
|          | 박*  | 약학과       |
|          | 이*지 | 약학과       |
| 컴활도전기    | 김*희 | 약학과       |
|          | 김*연 | 약학과       |
|          | 김*경 | 약학과       |
|          | 김*희 | 약학과       |
|          | 이*민 | 약학과       |
| 테셋       | 고*영 | 약학과       |
|          | 김*주 | 약학과       |
|          | 이*혜 | 약학과       |
|          | 정*경 | 약학과       |
|          | 최*웅 | 약학과       |

| 팀명              | 팀원  | 학과     |
|-----------------|-----|--------|
| 파이오니어(PIONEER)  | 이*우 | 바이오공학과 |
|                 | 심*미 | 바이오공학과 |
|                 | 김*중 | 바이오공학과 |
| 어/느새부터 컴활은 해야해  | 박*희 | 약학과    |
|                 | 김*정 | 약학과    |
|                 | 박*현 | 약학과    |
|                 | 서*연 | 약학과    |
|                 | 장*영 | 약학과    |
| 기묘한 토익공부        | 이*혜 | 상담심리학과 |
|                 | 박*원 | 상담심리학과 |
|                 | 이*현 | 상담심리학과 |
|                 | 임*민 | 상담심리학과 |
| 스물학번            | 정*민 | 간호학과   |
|                 | 김*늘 | 간호학과   |
|                 | 반*은 | 간호학과   |
| 긍정 파워!! 세다 파워!! | 이*빈 | 간호학과   |
|                 | 박*은 | 간호학과   |
| 가노그룹 영어토익반      | 김*민 | 간호학과   |
|                 | 김*현 | 간호학과   |
| 토익을 부실 간호       | 윤*별 | 간호학과   |
|                 | 정*연 | 간호학과   |
|                 | 이*하 | 간호학과   |
| 갯 토익 차차차        | 황*영 | 간호학과   |
|                 | 신*혜 | 간호학과   |
| 루돌프             | 이*주 | 미술치료학과 |
|                 | 선*혜 | 미술치료학과 |
|                 | 임*은 | 미술치료학과 |
| 으쌔으쌔            | 김*은 | 상담심리학과 |
|                 | 김*민 | 상담심리학과 |
|                 | 장*우 | 미술치료학과 |

## ○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 우수팀 활동 사례

### 팀명 : 부꾸부꾸

- 학부: 시보건의료학부
- 팀원: 신\*리, 오\*림, 정\*수, 정\*희
- 학습주제: 자격증 준비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학습장소: Naver whaleON
- 학습 기간: 2021.12.30. ~ 2022.01.27.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12/30 | 14:00 ~ 15:30 | whaleON | 각자의 컴퓨터활용능력 필기에 대한 이해도를 알기 위해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전자문제집 cbt를 활용하여 시험 응시를 했다. 응시 후에 각자의 한 달 커리큘럼을 발표하여 서로에게 버팀목이자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학습 메이트가 되어주기로 했다.   |
| 01/03 | 21:00 ~ 22:30 | whaleON | 팀 내 자체 네이버 폼을 활용한 설문조사를 하여 각자 일정이 다르니 공부 시간을 기록할 수 있는 '열품타 캠퍼스 터디'를 활용해 온라인 독서실을 하자는 의견이 나와 시행하기로 했고 일주일 동안 팀원들이 공부한 토대로 시험을 봐 각자 점수를 공개했다.   |
| 01/22 | 21:00 ~ 23:30 | whaleON | 모두가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를 취득한 후 실기를 위한 소모임이 시작되었다. 각자 1회분의 실기 문제를 맡아 발표하기로 했는데 '신*리', '오*림', '정*희', '정*수' 순으로 발표하기로 하여 '신*리', '오*림'이 발표하였고 발표하다가 부족한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 01/27 | 21:00 ~ 23:30 | whaleON | 4회차는 3회차 소모임과 연장선으로 '정*희', '정*수'가 발표시간을 가졌다. 발표하다가 모르는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어 같이 해결해나갔고 정답과 비교하여 계산 파트의 정답률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였다. 각자 1회씩 문제, 총 4회를 풀어보니 각각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 나와 해결하는 방법을 깨달았고 팀원들과 함께 푸니 잘 이해가 되었다. |

○ 활동 소감

▶신\*리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시작한 소모임이지만 덕분에 미루고만 있던 컴퓨터활용능력 2급에 도전하였다. 또한 혼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과 함께 어플 '열품타'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공부 시간을 공유하여 내가 더 많이 공부하겠다는 경쟁심으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짧은 기간 탓에 소모임을 많이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해당 기간동안 함께 공부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 역시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이번 소모임 활동을 통해 함께 공부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었고, 혼자라면 미뤄두었던 컴퓨터활용능력 시험을 실기까지 응시할 수 있었다.

▶오\*림

이번 방학에는 보람찬 방학을 보내고 싶어 자격증을 하나라도 취득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 그런데 혼자 준비하기엔 공부를 소홀히 할 것 같아 친구들과 함께 학교 소모임을 활용하여 준비해보자고 제안을 하게 되었다. '열품타'를 이용해 친구들의 공부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자극을 받으면서 필기 공부를 했던 것 같다. 그 결과 소모임 2주 만에 필기 합격할 수 있었고 3, 4주차는 실기를 위해 함께 공부하면서 부분합, 고급필터 등 모르는 부분을 팀원들과 힘을 합쳐 풀어 이해할 수 있었다. 실기시험은 시험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 2월에 취득할 예정이다.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지만, 소모임 계획서대로 아무런 무리없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 같다. 앞으로 남은 실기도 모든 팀원들이 통과하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다.

▶정\*수

이전부터 컴활을 취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했지만 혼자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계속 뒤로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다 같이 공부하면 잘 될 것 같아서 소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렇게 자격증 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같이 공부한 건 처음이라서 낯설었다. 그래도 팀원들이랑 대화하면서 시험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고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니 동기부여가 들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 '열품타'라는 앱을 활용해서 스터디를 했는데 이런 시간 관리 앱을 처음 활용했다. 공부한 시간을 체크해주고 실시간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집중력이 끊어질 때도 친구들을 보면 좀 더 참고 공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공부할 때 이러한 앱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다. 비대면이었지만 가족 외에 사람들과 얼굴 보며 대화하고 소통하는 건 오랜만이라서 좋았고, 필기 2급을 딸 수 있었던 보람찬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다 같이 실기 공부했던 것을 기억하고 2월에는 실기를 따라겠다.

▶정\*희

소모임으로 인해서 친구들과 함께하며 혼자 공부할 때보다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동기부여가 되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고 제일 어려웠던 함수 부분도 서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조언과 함께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스터디 효과로 컴활 2급 필기에 한 번에 붙을 수 있었으며 실기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소모임을 활용 중이다.

## 팀명 : 슬기로운 컴활생활

- 학과: 의생명과학과
- 팀원: 박\*정, 최\*희
- 학습주제: 자격증 준비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01.14. ~ 2022.01.26.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01/14 | 09:30 ~ 11:30 | ZOOM |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 중 '컴퓨터 일반' 과목에 대한 소모임을 진행하였다. 한글 Window 10의 기본과 고급기능, 컴퓨터 시스템의 개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넷 활용, 멀티미디어 활용, 컴퓨터 시스템 총 8단원 중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한글 Window 기본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였다. 또한, 각자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단축키 부분, 각 하드웨어의 역할)들과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도 같이 공부하였다. |
| 01/18 | 09:30 ~ 11:30 | ZOOM |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 중 '스트레드 시트' 과목에 대한 소모임을 진행하였다. 입력 및 편집, 수식활용, 차트 작성, 출력,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매크로 총 7단원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입력 및 편집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였다. 또한, 각자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매크로, 함수 부분)들과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같이 공부하였다.   |
| 01/26 | 09:30 ~ 11:30 | ZOOM |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 시험에 대한 소모임을 진행하였다.<br>'2022 시나공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 책에 나와 있는 예시문제들을 ZOOM의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하여 같이 풀었으며, 중요한 함수들을 정리했다. 또한, 함수문제들을 중심으로 어렵다고 느끼거나, 중요하다고 느낀 문제에서 사용된 기능이나, 응용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

○ 활동 소감

1. 학습 목표 및 달성 내용

〈학습 목표〉

- ① 학교에서 제공해준 해커스 강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실기 수료
- ② 방학 중에 졸업 요건인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취득

〈달성 내용〉

- ① 학교에서 제공해준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해커스 강의 (스프레드 시트 일반(필기), 컴퓨터 일반(필기), 스프레드 시트 실무(실기))를 다 수강하고, 수료하였다.  
\* 박현정 학생은 스프레드시트 일반 과목은 '시나공' 교재에 첨부되어있는 강의를 수강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해커스 강의를 듣고 수료하였다.
- ② 소모임 운영 기간에 졸업 요건인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1달 동안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번 소모임 운영 기간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 시험 준비를 목표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모두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며, 실기 시험 준비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하였다. 실기 시험은 2월 내에 볼 계획이다. (실기 시험 접수증 첨부)

2. 진행 과정과 방식

〈진행 과정〉

① 필기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는 '컴퓨터 일반+스프레드시트 일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단원 37개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 한 단원을 맡아 그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ZOOM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학습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배운 내용을 요약본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각자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 서로의 팁을 공유하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충하고, 필기시험에 자주 출제되며, 중요한 개념들과 문제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해당 필기시험을 대비하였다.

특히, 필기시험 직전에는 3개년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개념을 외우고 정리한 요약본을 보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필기시험을 준비하였다.

② 실기

컴퓨터활용능력 2급 실기는 '스프레드시트 실무'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문제를 ZOOM의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하여 같이 풀면서, 개념들을 공유하고, 보충하였다.

또한, 해당 과목을 각자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들을 공유하여 개념을 보충하였으며, 실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들도 같이 풀어보면서 해당 실기 시험에 대한 중요 개념들과 기능 사용 방법을 숙지하였다.

특히, 계산 부분(함수)이 제일 복잡하여서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보았다.

〈진행 방식〉

- 사용한 교재: 2022년 시나공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실기
- 진행 장소: ZOOM 이용 (비대면)
- 추가 자료: 해커스 강의에서 제공해주는 강의+자료, 3개년 기출 문제

**3. 결과물**

- 필기 개념 내용 정리 요약본
- 강의 들으면서 쓴 교재
- 각자 풀어본 기출문제 & 오답 노트  
(파일로 첨부)

**4. 소감 및 종합 의견**

▶박\*정

사실 컴퓨터활용능력 2급 공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학과 졸업 요건에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공부를 하면 매우 지루해하다가 계속 미룰 것 같아 동기부여를 위해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에 신청하여 활동하게 되었다.

확실히 그냥 강의만 들어서 단방향으로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서로 배운 것을 알려주고 팁을 공유하는 방식이 시험을 준비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 학습한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서 좋았다. 또한, 자격증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을 내는 것이 중요한데 친구랑 같이 자격증 취득을 준비해서 덜 지루했고 일정량을 정해서 각자 공부하고 서로 공부한 부분을 검사함으로써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잘 마쳐 필기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원래 계획은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시간관계상 실기 시험까지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하지만, 동계방학 학습법 소모임이 끝나더라도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실기 시험도 통과하고 싶다.

▶최\*희

우리 학과의 졸업 요건 중 하나인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취득에 '취득이 어렵지 않을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등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해당 자격증을 3, 4학년 때 준비하여 취득하는 것은 시간상으로 매우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 겨울 방학 동안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해당 자격증 취득을 준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겨울 방학 학습법 소모임을 통하여 혼자서 해당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원을 받으며 친구들과 함께 해당 자격증을 취득을 준비할 수 있어 부담감과 체감 취득난 이도가 줄어들 수 있었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준비할 수 있어, 재미없는 준비 과정을 즐겁게 할 수 있으며,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친구의 도움을 통해 보충할 수 있고, 내가 친구들을 가르쳐주는 과정을 통해 개념들을 더 이해할 수 있어, 더욱 쉽게 자격증 준비를 할 수 있었다.



# 팀명 : 공CHA

- 학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 팀원: 신\*경, 이\*렬
- 팀명: 공CHA
- 학습주제: 대외공모전 준비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12.29. ~ 2022.01.08.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12/29 | 20:00 ~ 22:00 | ZOOM | 첫 번째 공모전(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기획자가 되다) 1차 회의<br>- 기획서 주제 및 양식 확인<br>- 아이디어 회의 및 아이디어 구체화<br>- 관련 자료 수집      |
| 12/31 | 19:00 ~ 21:00 | ZOOM | 첫 번째 공모전(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컬렉션 기획자가 되다) 2차 회의<br>- 기획서 초안 작성<br>- 최종 마무리 및 제출                                |
| 01/04 | 19:00 ~ 21:00 | ZOOM | 두 번째 공모전(202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확산 아이디어 공모전) 1차 회의<br>- 기획서 주제 및 양식 확인<br>- 관련 자료 조사<br>- 아이디어 회의            |
| 01/05 | 20:00 ~ 22:00 | ZOOM | 두 번째 공모전(202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확산 아이디어 공모전) 2차 회의<br>- 아이디어 회의 및 아이디어 구체화<br>- 관련 자료 조사<br>- 콘티 구상<br>- 피드백 |
| 01/08 | 18:00 ~ 20:30 | ZOOM | 두 번째 공모전(2021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확산 아이디어 공모전) 3차 회의<br>- 아이디어 회의 및 아이디어 구체화<br>- 카드뉴스 제작<br>- 최종 마무리 및 제출     |

## ○ 활동 소감

학습법 소모임에 공모전 분야도 포함되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방학기간을 알차게 보내면서 수상경력도 쌓을 수 있는 공모전에 도전해보기로 하였습니다. 학습법 소모임 활동은 저희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방학기간동안 두 가지 공모전(+a)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공모전에 참여하며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다양한 경험을 하며 방학동안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공모전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셋째, 활동보고서를 작성하며 회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희를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의 장단점 및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앞으로의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학습법 소모임' 활동은 저와 팀원에게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도전하고 성취하는 건 힘들지만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고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한층 더 넓은 시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되새기며 공모전에 끊임없이 도전할 것이며, 특히 2월에는 '[좋은생각 에세이 공모전] 제17회 생활문예대상'에 참가하여 '학습법 소모임'을 통해 얻은 것들을 바로 실천에 옮기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팀명 : 소라

- 학과: 의료홍보미디어학과, 미술치료학과
- 팀원: 이\*림, 이\*서
- 학습주제: 토익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12.31. ~ 2022.01.31.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12/31 | 17:00 ~ 19:00 | ZOOM | 레벨 테스트를 기반으로 한 목표 점수 계획, 학습 계획 수립, 학습 방법 설정     |
| 01/08 | 17:00 ~ 19:00 | ZOOM | DAY 1~16 분량의 토익 기출 보카 단어 시험, PART 1 분량의 RC와 LC  |
| 01/15 | 17:00 ~ 19:00 | ZOOM | DAY 17~30 분량의 토익 기출 보카 단어 시험, PART 2 분량의 RC와 LC |
| 01/21 | 17:00 ~ 19:00 | ZOOM | DAY 1~10 분량의 토익 기출 보카 단어 시험, PART 3분량의 RC와 LC   |
| 01/27 | 21:00 ~ 23:00 | ZOOM | DAY 11~12 분량의 토익 기출 보카 단어 시험, PART 4 분량의 RC와 LC |
| 01/31 | 17:00 ~ 19:00 | ZOOM | DAY 21~30 분량의 토익 기출 보카 단어 시험, 모의토익 실시           |

### ○ 활동 소감

#### ▶이\*서

매번 스스로 토익을 공부하기 위한 계획과 다짐을 세웠지만 지키기는 어려웠다. 항상 단순한 다짐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모임을 계획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정을 일자별로 세울 수 있었다. 일자별로 작은 목표들이 생기자 내가 당장 해야 하는 과제가 명확했고 그것을 행하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다. 소모임을 통해 각자의 목표 설정을 하고 서로를 끌어주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학습과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이\*림

토익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고 있었고 한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가 취업을 위해 토익의 필요성을 느꼈었다. 맨 처음 영어를 시작할 때는 공부 습관도 들어있지 않았고 너무 어렵게만 느껴져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함께 하는 팀원의 응원과 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하게 되었다.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점수와 관련된 드라마틱한 성과를 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영단어들을 익힐 수 있었고 모의토익을 통해서 왕초보 수준의 토익 실력에서 기본기는 익힌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음을 증명받을 수 있어 큰 성취감을 느꼈다. 이번 시간을 계기로 앞으로 토익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 팀명 : 지역사회간호, 간호행정 마스터

- 학과: 간호학과
- 팀원: 김\*우, 이\*훈
- 학습주제: 전공 심화 학습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12.27. ~ 2022.01.31.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12/27 | 21:30 ~ 00:30 | ZOOM | ZOOM을 통해서 최소 공부시간을 정하고 법전을 만들어 공부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교재를 선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도를 나갈지 정했습니다.   |
| 01/03 | 21:30 ~ 23:00 | ZOOM | 간호 관리 part1 관리의 이해를 공부하였습니다.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프린트를 다시 다운받아 복습한 후, 대한 간호협회 문제집과 간호과학회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또한 <2022 pass 간호관리> 개념서에 있는 내용에 틀린 문제에 대한 내용을 적어 단권화하였습니다.  |
| 01/13 | 21:30 ~ 23:00 | ZOOM | 이번에는 <2022 pass 간호 관리> part2 간호 기획을 공부했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해당 파트 개념을 숙지하였고 개념 확인 퀴즈를 풀어보았습니다. 또한 유소영 교수님의 프린트를 빠르게 복습한 뒤 간호과학회 문제지를 풀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제 퀄리티가 높았던 문제를 추려서 10문제를 만들었고 서로 엄선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 서로 알려주면서 답이 무엇이며 틀린 선지는 어느 부분이 틀린 것인지 토론하면서 깊이 있게 공부하였습니다. |
| 01/17 | 21:30 ~ 23:00 | ZOOM | <2022 pass 간호 관리> part 3 조직/part 4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방식은 저번과 같았습니다. 인강을 듣고 빠르게 지난 학기 프린트를 출력하여 복습하였습니다. 그 후 간호과학회 문제집과 대간협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틀린 문제와 핵심 문제는 따로 추려서 서로 문제를 낸 후 해설해주었습니다. 문제에 해당하는 개념   |

|       |               |      |  |
|-------|---------------|------|--|
|       |               |      | 과 출제 빈도가 높은 것들을 모아 <2022 pass 간호관리> 책에 단권화하였습니다.   |
| 01/24 | 21:30 ~ 23:00 | ZOOM | <p>저번 학기에 간호관리에 대해서 배운 것들을 모두 복습하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lt;2022 pass 지역사회 간호&gt; 책으로 지역사회간호를 공부하였습니다. 공부 내용은 총 3가지였습니다. part 1 국내외 보건정책 이해/ part2 지역사회 간호과정 / part3 역학지식 및 통계 기술 실무 적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인강을 통해 개념을 잡고, 빠르게 프린트물로 확인하고 과학회, 대간협 문제를 풀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를 골라 함께 풀어보고 틀린 문제를 해설하였습니다. 틀린 문제에 대한 개념을 &lt;2022 pass 지역사회 간호&gt; 책에 단권화하였습니다.</p> |

○ 활동 소감

1~2주차 소감

▶김\*우

저번 방학에는 늦잠자고 늦게 일어난 적도 있고 공부를 1시간도 안한 적도 있었다. 이번에는 소모임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기와 벌금제도를 통해서 아침형 인간이 되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을 반복하니 공부뿐만 아니라 건강도 좋아진 것 같다. 좋은 생활습관이 자리잡은 것 같아 뿌듯하다.

▶이\*훈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방학이라는 기간에는 여태껏 늦잠 자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고, 개강 후에 전에 배운 전공과목 내용을 아예 까먹었는데 일주일에 1~3일 정도 같이 실시간 ZOOM을 통해 전공과목을 복습하고 문제도 푸니, 간호 전공 과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할 수 있고 1년 후에 국가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보람차다.

3주차 소감

▶김\*우

처음에는 벌금이라는 제도가 어색하기도 하고 이걸 잘 지킬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50분 동안은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집중하면서 공부하니까 진도도 빨리 나갈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성취감과 자존감이 높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 주차부터 10문제씩 내고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공유했고 이를 함께 풀어보고 얘기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해당 단원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훈

점점 벌금이라는 제도에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 방학 중에도 알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번주에 배운 내용을 다시 복습하고 이번 주에 배울 내용들을 강의와 유소영 교수님 프린트를 통해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이론만을 떠나 서로 2학기 시험기간 때 틀렸던 어려운 문제들을 다시 정리하여 서로에게 10문제씩 내었고, 함께 확인해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토의를 통해 얘기해보는 과정에서 단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방학 중에 꾸준히 하여 간호 관리, 지역사회간호를 다시 한번 깊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4~5주차 소감

▶김\*우

어느덧 마지막 보고서를 쓰는 날까지 왔다. 시간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면서 방학을 보낸 적은 처음인 것 같다.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서툴러서 힘들었고, 매끄럽게 굴러가지 않아서 조금 해한 적도 있었고, 답답해 했던 기억도 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집중해서 한 곳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하다보니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고 끝이 안보이던 공부도 결국 끝이났다. 소모임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은 것 같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얻게 되었고, 건강을 얻었다. 항상 거르던 아침을 먹게 되었고 안하던 운동을 하게되었다. 확실히 누군가 옆에서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힘들 때는 서로 격려하고 토닥여 주다보니 완주까지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남은 방학 기간도 효율적으로 보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아침형 인간을 만들어준 소모임에 감사하고 끝까지 나를 이끌어준 팀원에게 감사한다.

▶이\*훈

혼자서 할 땐 잘 안되었지만 ZOOM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같이 공부를 하니 마치 시험기간 같아 공부 집중이 더 잘되고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었다. 특히 서로 문제를 풀며 오답노트 하는 시간에 모르는 문제에 대해 알려주는 토의 방법을 이용하니 공부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들었다. 이론을 듣고 나 혼자 복습하는 것 보다 남을 알려주는 공부 방식이 기억에도 더 오래남는 것 같다.





2021 학년도 2 학기 학습법 소모임 활동 사례 모음집

## VIII.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1. 으르렁약물학
  2. 으샤으샤



## ○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완료 명단

| 팀명     | 팀원  | 학과     |
|--------|-----|--------|
| 으르렁약물학 | 김*정 | 약학과    |
|        | 박*현 | 약학과    |
|        | 서*연 | 약학과    |
|        | 박*희 | 약학과    |
|        | 장*영 | 약학과    |
| 으쌔으쌔   | 김*은 | 상담심리학과 |
|        | 김*민 | 상담심리학과 |
|        | 장*우 | 미술치료학과 |

# ○ 동계방학 교수-학생 합동 소모임 활동 사례

## 팀명 : 오르렁약물학

- 학과: 약학과
- 지도교수: 최\*진
- 팀원: 김\*정, 박\*현, 박\*희, 서\*연, 장\*영
- 학습과목: 병태생리학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2.01.11. ~ 2022.01.25.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01/11 | 16:00 ~ 18:00 | ZOOM | ch.15 폐 - ch.18 간과 쓸개<br>각 단원을 강의 시간에 사용한 ppt를 이용해 복습한 후 각 단원별로 한명씩 정리를 해왔다. 요약 자료에 빈칸을 뚫어 문제를 만들어오고 스터디 시간에 돌아가면서 구술로 빈칸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
| 01/18 | 16:00 ~ 18:00 | ZOOM | ch.19 이자 - ch.23 유방<br>이자, 콩팥, 하부요로와 남성생식계, 여성생식관과 유방 파트를 복습하였다. 모임 전에 수업자료를 복습하고 요약자료에 빈칸을 뚫어 온 후 스터디 시간에 구술로 빈칸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br>교수님께서 모임에 참여하신 후 소모임 진행내용을 보고드리고 각 단원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셨다.  |
| 01/25 | 16:00 ~ 18:00 | ZOOM | ch.24 내분비계 - ch.28 중추신경계<br>내분비계, 피부, 중추신경계 단원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찬가지로 소모임 전에 각 단원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고 요약자료에 빈칸을 뚫어서 스터디 시간에 돌아가면서 각 빈칸을 채우면서 해당 파트에 관해 부연설명하며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수님께서 ZOOM에 들어오신 후 해당 회차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 교수님께는 해당 단원들에 대해 중요한 부분을 다시 짚어주시며 스터디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

## ○ 활동 소감

## ▶김\*정

원래는 약물학을 공부하려 했지만 사정이 생겨 병태생리학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병태생리학 과목도 5학년 때 배울 약물치료학 과목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이지만, 작년에 시험 기간에 치여 벼락치기로만 급하게 학습하고 너무 잊은게 많아 아쉬웠는데 일부 단원이거나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

## ▶박\*현

방학때 다시 또 공부를 하려니 힘들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지만, 동기들과 줌으로나마 만나서 같이 공부도 하고 시험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다시 얘기하면서 학습하니까 더 오래 기억에도 남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다.

## ▶박\*희

한번 공부하고 시험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또 약물학 과목이랑 연계되는 내용도 많아서 여러 질병에 관해 체계가 잡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 ▶서\*연

항상 혼자 공부하거나, 동기들이랑만 공부하다가 교수님이 마지막에 정리해주시고 중요한 내용을 다시 알려주시니까 정리가 더 잘 되고 학습 방향에 대한 조언을 해주셔서 앞으로의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장\*영

조급하게 공부하지 않고 여유롭게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니까 병태생리학에 대해 더욱 흥미를 갖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동기들과 같이 공부하고 모르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교수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

## 팀명 : 으쌰으쌰

- 학과: 상담심리학과, 미술치료학과
- 지도교수: 강\*철
- 팀원: 김\*민, 김\*은, 장\*우
- 학습과목: 심리학개론
- 학습장소: ZOOM
- 학습 기간: 2021.12.27. ~ 2022.01.22.
- 학습일지

| 날짜    | 시간            | 장소   | 학습활동 내용  |
|-------|---------------|------|--|
| 12/27 | 21:00 ~ 00:00 | ZOOM | '마이어스의 심리학' 전공 파트 강의 및 문제 풀이 후 오답 작성<br><br>1. 심리과학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기 / 2. 마음의 생물학 / 3. 의식과 이중 궤적의 마음 / 4. 선천성과 후천성 그리고 인간의 다양성 / 5. 일생에 걸친 발달 / 6. 감각과 지각 |
| 01/01 | 21:00 ~ 00:00 | ZOOM | '마이어스의 심리학' 전공 파트 강의 및 문제 풀이 후 오답 작성<br><br>7. 학습 / 8. 기억 / 9. 언어와 사고 / 10. 지능 / 11. 동기:배고픔, 성, 우정, 그리고 성취 / 12. 정서, 스트레스 그리고 건강                     |
| 01/08 | 21:00 ~ 00:00 | ZOOM | '마이어스의 심리학' 전공 파트 강의 및 문제 풀이 후 오답 작성<br><br>13. 사회심리학 / 14. 성격 / 15. 심리장애 / 16. 치료   |
| 01/22 | 21:00 ~ 00:00 | ZOOM | 교수님과의 개별 면담 진행 후, 모든 스터디원들이 각자 소모임 활동 소감문을 작성한 후 각자 소감을 나누어 봄.   |

## ○ 활동 소감

## ▶김\*민

교수님을 통해 진로 및 대학원 진학에 관한 정보와 안내를 들을 수 있었다. 정확한 정보였기에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고, 실제 재학 중인 박사생분들을 초빙해 연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을 수 있어 뜻깊었다. 바쁘신 와중에 학생들을 챙겨주시는 교수님에게 감사했고, 이런 기회를 열어준 학교가 좋았다. 또한 4년간 배운 전공을 훑어볼 수 있었던 시간으로 매우 유익했다. 배운 느낌만 있을 뿐 지식이 없어 전공자로서 민망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성장할 수 있었다. 혼자 하는 공부보다 함께 하는 공부가 훨씬 좋았고 도움이 되었다.

## ▶장\*우

교수님께서 질문하면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다양한 분야의 박사생분들을 초빙하여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셨다. 대학원 진학과 관련하여 알지 못했던 정보를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또한 그동안 배웠던 전공을 복습하는 시간이었다. 평소 시험기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기간이 끝나면 대부분 잊어버려 이번 스터디를 하면서 처음 배우는 듯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전공자로서 부끄러웠다. 혼자서라면 작심삼일로 끝났을거 같은데 스터디원과 함께 해서 공부를 재미있게 하였고 잊었던 심리학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된 좋은 기회였다.

## ▶김\*은

수업을 제외하면 교수님과 직접 만나 뵙거나, 상담하는 것은 일정을 조율하기도 어려워 자주 상담을 하지는 못하였는데, 이렇게 소모임을 통하여 교수님과 평소 궁금했던 것이나 알지 못하였던 정보를 배워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소모임을 통하여 더 돈독하게 스터디원들과 교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며, 전공 공부를 겸하면서 방학동안 정말 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얻게 되어 너무 좋았으며 한 달 정도 많은 것을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 2021학년도 2학기 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법 소모임 활동사례 모음집

---

**발행일** 2022년 2월

**발행인** 김 억 환

**발행처** 차 의과학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

**주 소** 경기도 포천시 해룡로 120

전 화 : (031) 850-8949~51

팩 스 : (031) 543-2397

이 메 일 : chactl@chamc.co.kr

홈페이지 : <https://ctl.cha.ac.kr>

인 스 타 : chactl\_voice